

관악
중학교

■ 차례 ■

제 1 부

I. 관악의 지리

1. 관악구의 현황	6
2. 관악구의 동	7
3. 관악구의 인구, 시설	10
●소감	11

II. 관악의 역사

1. 관악의 역사	14
2. 강감찬 장군과 낙성대	18
3. 관악구의 유물&유적	19
4. 관악의 역사적 인물	21
5. 관악구 주민 인터뷰	23
6. 관악의 괴담	25
7. 관악의 전설	27
●소감	28

III. 관악의 자연

1. 관악산	32
2. 삼성산	35
3. 도림천	37
4. 낙성대 공원	40
5. 보라매 공원	43
6. 관악구 도시텃밭	45
7. 관악의 식물	47
8. 관악의 곤충	51
●소감	53



IV. 관악의 문화

1. 관악의 공방과 소극장	58
2. 관악의 미술관과 박물관	60
3. 관악의 벽화길	63
●소감	66

V. 관악에서 배우고 꿈꾸기

1. 또 다른 배움, 문화센터	68
2. 관악의 도서관	70
3. 싱글벙글 교육센터	72
4. 그 밖의 배움터	74
●소감	76

VI. 관악에서 생활하기

1. 관악의 축제	80
2. 관악의 지역기관 및 의료시설	82
3. 관악의 경찰서와 안전	84
4. 관악의 쇼핑물	87
5. 관악의 시장	88
6. 관악의 맛집	90
●소감	92

제 2 부

I. 마을 역사 탐구 프로젝트	97
●소감	101
II. 관악구 지역 브랜드 만들기	103



◀ 제 1 부 ▶

I. 관악의 지리



출처 <http://blog.naver.com/gstory7/220730137715>

1. 관악구의 현황

(3-4 신채원, 3-5 김지수)

1) 기본 현황



면적 : 전체-29.57km² (서울특별시의 4.9%)
 주거지역-15.33km²(51.86%)
 상업지역-0.39km²(1.32%)
 녹지지역-13.84km²(46.82%)

인구 : 251,955세대 (서울특별시의 6%),
 509,663명 (서울특별시의 5.1%)

최대동 : 은천동 (15,021세대 35,356명)
 최소동 : 중앙동 (8,206세대 14,867명)

*서울시 4,189,839세대 9,930,616명 (2016.12월말 현재)
 출처: 관악구청-일반현황

2) 관악구의 위치와 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관악구의 위치와 크기를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겠지만, 구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자세히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관악구의 위치에 대해 알아 보겠다. 관악구의 위치를 설명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단순히 “서울특별시 남부에 위치해”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462(봉천동 1570-1)야” 와 같이 도로명 주소를 이용해 설명 할 수 있다.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는 경도와 위도를 이용해 설명할 수 있는데, 관악구의 경도와 위도는 각각 동경 126°5

3'~126°59'와 북위 37°25'~37°29'이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악구의 위치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관악구의 크기에 대해 알아 볼 차례이다. 관악구의 면적은 29.57km²이고, 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50만9663명이다. 면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관악구의 크기가 잘 상상이 안 될 것이다. 지도를 보면 관악구의 주변에는 동작구, 금천구, 서초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관악구는 동작구, 금천구보다 크고 서초구, 강남구보다 작다. 그리고 관악구는 경기도 과천시와 접해있다.



2. 관악구의 동

(3-5 김지수, 3-1 유호재, 3-5 정승우)

1) 과거의 관악구

길을 걷다가 문득 우리가 살고 있는 관악구의 과거 모습이 궁금한 적은 없었는가? 옛날 조선시대 때 관악구는 경기도 시흥군 동면 지역과 과천군 하북면의 일부였다고 한다. 관악구가 경기도의 일부였을 때부터 지금의 관악구가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관악구라는 구가 된 건지 알아보자.

1914.3.1.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를 발표하여 전국의 행정구역을 자의적으로 조정하였는데, 이때 관악구지역은 경기도 시흥군 동면이었다.
1963.3.1.	서울시 행정구역 확장으로, 관악구 지역은 영등포구에 편입되면서 관악 출장소에서 행정을 맡았다.
1968.1.1.	서울특별시조례 제491호로 관악출장소가 폐지되어 영등포구의 직할로 편입되었다.
1973.7.1.	관악구가 영등포구에서 분리 신설되었다. 관악구에 편입된 지역은 현재의 동작구 노량진동, 본동, 상도동 등 9개 동, 서초구의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 잠원동, 양재동 및 현재의 관악구 지역인 봉천동, 신림동이었다.
1980.4.1.	관악구 지역의 노량진동, 상도동 등을 분리시켜 동작구를 신설하고, 방배동 일원과 사당동 일부를 강남구로 편입시켰다. 또한 사당동 일부는 관악구에 편입시켜 남현동으로 되었다.
1988.1.1.	구로구 독산동 일부가 관악구 미성동에 편입되었다.
2008.9.1.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779호에 따라 21개 행정동으로 정리하면서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하여, 보라매동·은천동·성현동·중앙동·청림동·행운동·청룡동·낙성대동·인현동·남현동·신림동·신사동·조원동·미성동·난곡동·난향동·서원동·신원동·서림동·삼성동·대학동 등이 탄생하였다.

2) 관악구의 동



관악구의 행정 구역은 봉천동, 신림동, 남현동 3개의 법정동을 보라매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중앙동, 인현동, 남현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신사동, 신림동, 난향동, 조원동, 대학동, 은천동, 성현동, 청룡동, 난곡동, 삼성동, 미성동 21개의 행정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봉천6동은 지명이 아닌 추상명사에서 따온 '행운(幸運)동'으로 바꾸었고, 강감찬 장군의 출생지라는 점에서 출생지, 아명, 시호를 딴 '낙성대동(구 봉천7동)', '은천동(구 봉천본동+9동)', '인현동(구 봉천11동)' 등은 지역 위인을 기리고 역사성을 반영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3) 관악구의 지명 유래

봉천동	봉천은 관악산 근처의 마을로 관악산이 험하고 높아 마치 하늘을 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서 이름을 삼았다고 합니다. 현재 9개의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
당곡	보라매동 북부 714번지 일대 마을로 당골이라고도 불리었다. 지금의 당곡초등학교와 당곡시장의 뒷편이다. 옛날에 관악지역에서 가장 큰 마을로 전주 이씨가 많았다고 한다. 당곡이라는 이름은 예전에 이곳이 골짜기였으며 이 골짜기에 제당을 짓고 무당이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다.
호리목	성현동에서 은천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현대시장 일대다. 지형이 호리병처럼 오목하게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이곳에서 상도동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을 능고개라 하였다. 상도동을 넘어서면 양녕대군 묘가 있기 때문이다.
화다리	봉천동 963번지 주변에 활터가 있었고 그 활터를 가기 위한 조그마한 다리가 있어 그 다리를 화다리로 불렀다. 본래의 명칭은 활다리였으나 구전되면서 화다리로 변칭되었다고 하며, 이곳에 마을주민들이 모여 활쏘기 등의 놀이로 화합과 협동정신을 다졌다. 현재는 택지개발로 사라지고 없다.
원당	행운동 낙성대역에서 장미원 아파트를 지나 사당동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부근의 마을로서 원당이라고 하였다. 예전에 사당이 많이 있었다 하여 사당동이라고 칭하였고 원당은 사당 옷마을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청능말	청룡동 청룡산 밑에 있는데 지금의 청룡시장 부근이다. 옛날에 능이 있었다고 하며, 강감찬 장군이 말을 타고 이 마을 뒷산을 지나다가 유달리 푸른 것을 보고 능자리로 좋은 곳이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까치고개	지금 남부순환로의 봉천동과 남현동 사이 고개로서 옛날 이곳에 수목이 우거져 까치가 많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일명 작현, 가추개라고도 한다.
쑥고개	청룡동에서 서림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옛날 소나무 숲이 울창하여 숲을 많이 구웠는데 이에 따라 쑥고개라 불리우다 쑥고개로 변했다.
남현동	원래는 사당동이었지만 관악구에서 동작구를 분할하면서 사당1동의 관악지역을 남현동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이는 남쪽에 있는 고개마을이라는 뜻으로 고개는 남태령을 가리키는 말이다.
승방벌	남현동 관음사 아래에 있던 마을 이름 또는 들 이름이다. 남현동의 작은 마을로서 본래 남태령 가까이에 있던 남태령과 심방들이 있었으며 큰 마음도 아니고 몇 집이 사는 작은 마을이다
남태령	옛날부터 여우고개라고 불려져 왔으나 조선시대 정조가 지금한 효성으로 아버지 사도세자를 그리워하며 능을 참배하러 행차하던 중 과천현 이방에게 고개 이름을 물은 즉 "서울에서 남쪽으로 맨 처음 큰 고개이기에 남태령이다"라고 아뢴 것이 현재의 고개 이름이 되었다.
신림동	신림리는 본시 서원리, 신림리, 난곡리로 나뉘어졌으나 1911. 4. 27일 신림리로 통합되었으며 1963년 1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면서 신림동으로 되었다. 신림리란 마을은 관악산 기슭이어서 그 일대에 숲이 무성하다 하여 생긴 이름으로 현재 11개의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
복은말	보그니마을 이라고도 하는데 현재의 서림동 108번지 일대로 옛날 이 마을에 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 복이 숨어 있는 마을이라는데서 유래하였다.



탑골마을	지하철 낙성대 입구역에서 낙성대까지 인현초등학교 뒷편으로 자연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이곳 동네 이름을 탑골이라 불렀다. 강감찬 장군의 출생지로 장군의 생가터는 성역화 되었으나 탑골마을은 주거지로 되었다.
양지마을	광해군 7년(1615년) 좌부승지 윤길이가 폐비를 반대하여 광해군의 진노를 사 지금의 삼성동 지역으로 피신하여 정착하였고 둘째아들이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성주목사에 제수되었다. 인조임금은 윤길에게 관직에 나와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나오지 않아 인조임금이 윤길을 찾아 행차하였을 때 양산을 쓰고 행차하였다 하여 양지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다.
서원말	지금의 신림사거리 일대에 있던 마을로 관악구에서 제일먼저 시가화된 지역으로 이곳에 서원정의 정자가 있어 강감찬 장군이 송도(개성)를 왕래할 때 자주 들렀다는 고사에서 유래되었다.
합실	삼성동 335, 336번지 주변 일대로 지형이 큰 조개모양을 하고 있어 합곡이라 적었던 것을 소리와 뜻을 옮겨 합실이라고 하였다.
난곡	유래가 분명치 않으나 강홍립 장군이 유배되어 은거할 때 난초를 많이 길렀다는 데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은천길	고려시대 명장 강감찬 장군이 어린시절 활쏘기, 말타기 등의 무예를 연마하던 곳이라 하여 장군의 어린시절 이름인 은천(殷川)을 붙여 은천길로 명명되었다.
자하골	서울대 부지로 편입된 이곳은 의성 김씨가 수백년간 터전을 닦아 온 곳으로 조선 말 시 서 화로 이름을 떨친 신위 선생의 아호인 자하에서 유래되었다.
살피재 고개	옛날 농로로 사용되었으나 산적과 여우의 출현으로 통행인에게는 무서운 고개로 어원은 고개를 넘을 때 좌우를 살펴보고 넘으라는 것인지, 고개는 높고 험한데 서민생활은 고달프고 어려움이 많아 고생스럽고 힘들어 슬프다는 의미인지는 분명치 않다.

학습활동

1. 관악구가 왜 관악구인지 쓰시오. (3-5 정승우)

2. 봉천동의 지명유래를 서술하시오. (3-3 김다운)

3. 봉천동과 신림동의 행정동 개수를 쓰시오. (3-3 김다운)



3. 관악구의 인구, 시설

(3-3 이준원)

1) 관악의 인구



- 251,955세대 (서울시의 6%), 509,663명 (서울시의 5.1%)
- 최대동 : 은천동 (15,021세대 35,356명)
- 최소동 : 중앙동 (8,206세대 14,867명)

* [참고] 서울시 4,189,839세대 9,930,616명 (2016.12월말 현재)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인구(명)	523,029	518,028	513,186	509,663	506,851

2) 주요 기관 및 시설

공공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 1, 보건소 1, 동 주민센터 21 • 경찰서 : 2개소(파출소 4, 지구대 5, 치안센터 13) • 소방서 : 1개소(119안전센터 4, 구조대 1) • 전화국 : 2개소 • 우체국 : 1개소(관내국 6, 우편취급국 10, 군사우편출장소 1)
복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 112개소(구립 48, 사립 64) • 사회복지관 : 5개소 • 청소년회관 : 1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 청소년독서실 : 1개소(공부방 1개소) • 지역아동센터 : 31개소 • 사회복지관 : 5개소 • 청소년회관 : 1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 청소년독서실 : 1개소(공부방 1개소) • 지역아동센터 : 31개소 • 어린이집 : 279개소(구립 50, 사립 4, 민간 96, 법인·단체 7, 가정 116, 직장 5, 부모협동 1) • 여성복지시설 : 5개소
기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 : 502개소 • 문화재 : 8개소 • 학교 : 95개소(유치원 36, 초등 22, 중등 16, 고등 17, 대학 1, 기타 3) • 도서관 : 117개소(구립5, 사립1, 구립작은도서관 33, 사립작은도서관 18, 학교도서관 55, 특수 5) • 영화상영관 : 2개소 • 의료업소 : 812개소, 약업소 : 958개소 • 시장 : 40개소

* 2016. 12월말 현재

출처 : 관악구청 홈페이지



소감

■ 3학년 1반 유호재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사는 관악구에 대해 한층 더 잘 알게 되었지만 생각보다 힘들었다. 우리 조의 주제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 내용을 친구들과 다르게 채워야 하는 부분이 힘들었던 것 같다. 처음에 조를 정했을 때는 정말 힘든 수행평가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이 잘 해주어서 좋았다. 고등학교 준비와 시험기간과 겹쳐서 정신이 없어 수행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친구들이 챙겨줘서 고마웠고 마을 책자가 생기면 꼭 가족들과 챙겨봐야겠다.

■ 3학년 1반 배재경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 꽤 하기 괜찮았던 것 같다. 일단 다른 지역도 아닌 우리가 살고있는 지역을 조사하니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고 또 우리 마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니 1석 2조라고 생각한다. 우리 후배들도 우리 지역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잘 알게 되면 좋겠고 다른 모둠끼리 각각 서로 다른 주제를 나누어서 조사를 하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이 혼자서 해야하는 것인데 지금 쓰는 나도 뭔가 뿌듯한 감정이 든다. 다음에도 이런 프로젝트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지만 해내었다.

■ 3학년 1반 김태운

처음에는 수행평가라고 해서 매우 귀찮기만 하고 또 점수가 들어가니깐 열심히는 해야 해서 수행평가를 하다 보니 우리가 사는 이 관악구에 대하여 위치나 지리적 특징 우리 조가 맡은 관악구의 지리적 특징에 대하여 더욱 많이 알 수 있게 되었고 관악구에 대하여 많이 알릴 수 있기도 해서 점점 더 집중이 잘 되었던 것 같다. 이번 활동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생각보다 더 좋은 수행평가 활동이었던 것 같아서 후배들한테도 꼭 좀 시켰으면 좋겠다.

■ 3학년 2반 홍석환

다른 프로젝트랑 비슷하게 체험하면서 직접 몸으로 뛰고 만드는 프로젝트인 것 같다. 요즘 이런 수행평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어느 정도 익숙해서 금방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내 생각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신중하게 주제를 정하지 못했던 것 같고, 어려웠기 때문에 쉬운 주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아쉽고 좋은 주제로 정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 3학년 2반 이태훈

빨리빨리 했어야하는데 제출하는 날 급하게 하게 되어서 그런지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고 우리 조의 주제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많이 위험했다. 우리 팀이 주제를 좀 어려운 걸 선택한 거 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다했으니 별로 할 말도 없는 듯하다. 지하철 역에 대해 설명 쓰는 게 할 거가 너무 없어서 힘들었다.



■ 3학년 2반 김지수

처음엔 잘 참여하지 않아서 어떤 일인지 모르고 적극적으로 하지 못 한 것 같은데 홍석환이 도와줘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적극적으로 나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는데 저희 동네를 더 알고 책으로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고, 비록 한 것은 자료수집과 총 정리 밖에 하지 못했지만 이태훈, 홍석환이 잘 해줘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3학년 3반 원인주

이번 수행평가를 하고 관악구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된 거 같다. 관악구의 이름 뜻을 모르고 살았는데 알게 돼서 좋다. 이렇게나 좋은 뜻이었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관악구의 동이 이렇게나 많은 줄은 몰랐다. 앞으로는 신경 좀 쓰고 다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언제나 국어 수행평가는 힘들다. 선생님께서 모둠활동을 정말로 좋아하시는 거 같다. 하지만 그 모둠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너무 힘들다. 나는 국어 모둠 수행평가 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수행평가를 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맨날 쓴다. 오늘도 좀 써야겠다. 다시는 이런 수행평가 안했으면 좋겠다.

■ 3학년 3반 김다은

이번 프로젝트는 굉장히 새로웠다. 지금까지 했던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책자를 만든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다. 우리 조는 관악구의 지리적 특징을 맡아 마을 교과서를 만들었다. 사실 쉬워보여서 결정했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관악구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구변화와 우리 동네가 전쟁 직후에 무허가 주택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또 어릴 적에 왜 우리 동네를 봉천 6동이라고도 하고 행운동이라고도 하는지 의문이 들었는데 자료를 조사하면서 왜 이렇게 바뀌었고 또 어떠한 동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알게 되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고 새롭게 알게 된 게 많아서 유익했다.

■ 3학년 3반 김재원

국어 프로젝트인 관악중학교 마을교과서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관악의 위치였는데 이번에 내가 사는 관악중학교의 위치가 어디서 나왔고, 옛날에는 뭐라고 불리어졌는지 알게되었다. 옛날 지도에는 어떻게 표시 되었었고 이 관악구의 산의 이름이 옛날에 관악산이라고 불리는 주변이라 관악구라고 지은 것을 알게 되었다. 아주 좋은 프로젝트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완전 재밌다. 또 했으면 좋겠다.

■ 3학년 4반 신체원

이번에는 반에서 나온 큰 주제를 모둠마다 나누어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어서 색다르긴 했다. 하지만 월요일까지 제출해야하는데 모둠원 친구들끼리는 아무얘기도 하고 있지 않고 할 생각도 없어 보여서 속상하긴 했다. 내가 16년 동안 살고 있는 마을이지만 이렇게 자세히 조사를 해보고 알아갈 기회가 없었는데 이 프로젝트 덕분에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 수 있게 된 거 같다.



II. 관악의 역사



1. 관악의 역사

(3-1 박지현, 황정현, 남현준)

1) 조선시대 대규모 읍호개정



태종 영정

조선조의 성립과 함께 태종 13년(1413년)에는 대규모 읍호개정이 단행되었다. 대규모 읍호개정이란 고려시대에 사용되던 ○주처럼 ‘주’자가 들어가는 고을들의 이름을 ‘산’자나 ‘천’자로 고치게 되는데, 이러한 조치로 고려시대까지 금주로 불렸던 관악구 일대는 금천으로 이름이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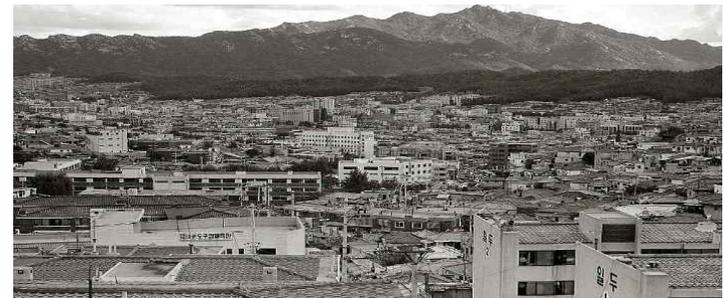
이듬해 태종 14년(1414년) 금천과 과천이 병합되어 금과현으로 변경된다. 수개월후 금과현이 해체되고 양천과 합하여 금양현으로 되었다가 1년 후인 태종 16년(1416년) 다시 금천현으로 변경된다. 이후 금천현은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었다. (출처 : 관악백과사전)

2) 일제강점기 지역 명칭

일제강점기 관악구 지역은, 1912년 조선총독부 간행 ‘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을 보면 관악구의 대부분은 시흥군 6면 22동리중 동면의 5리(상도,신림,봉천,가리봉,독산) 가운데 신림동, 봉천동에 속하며, 남현동 지역은 과천군 상북면에 속한다.

일제강점기 관악지역의 특징은 조선시대 사용되던 행정구역 명칭 중 난곡리와 서원리는 사라지고 신림리로 통합된 점이다. 신림리와 봉천리 체제로 개편되었으며, 광복 후에도 지명에 영향을 미쳐 신림동, 봉천동으로 이어졌다. (출처 : 관악백과사전)

3) 관악구의 탄생





1963년 관악구지역은 서울시로 편입되었지만, 철거민 및 이재민의 집단이주에 따른 정착지 조성과 이촌향도에 따른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감당할 기반시설이 극히 부족한 상태였다. 1965년부터 조성된 철거민 이주정착 단지에도 당초 이주시킨 철거민의 몇 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가히 몰밀 듯이 들어오면서 산기슭이나 하천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허가 불량주택을 무질서하게 만들어 나갔다. 무제한적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무계획적, 무방비 상태에서 받아들임으로써 무질서한 평면적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4) 관악구의 60년대



지역 내 도로사정도 열악하여 자연 지형을 따라 형성된 협소한 소로만 있었을 뿐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대방동과 신림동을 잇는 하나의 간선로만 계획되었을 뿐이다. 교통수단도 1966년애야 비로서 신림동-중앙청(광화문)간 버스노선이 생겨났다.

더욱이 늘어나는 인구의 노동력을 흡수할 만한 산업시설이 전무하였으며, 상하수도를 비롯한 생활 시설의 부족은 그야말로 도시빈민층의 생활상과 다를 바 없었다.

관악구 지역의 도시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초부터이며, 이때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현재와 같은 도시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악구의 발전을 앞당긴 결정적 계기는 서울대학교의 이전이었다. (출처 : 관악백과사전)

5) 달동네

6.25 전쟁을 겪으면서 서울에는 무허가 주택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월남 동포와 촌락을 떠나 도시로 온 사람들로 인해 서울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도시의 이곳저곳에 판잣집이 들어섰다.

봉천동과 신림동은 한때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유명했던 지역이다. 1963년 10월 해방촌 철거민 450가구가 도림천변에 이주하였고 1965년 10월경에는 이촌동 수재민 정리사업이 시행되었지만 미개발지에 계획된 영동지역과 달리 불량한 기성시가지이던 봉천동과 신림동 일대는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그렇게 늘어가던 달동네는 무허가 주택의 철거와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면서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사라진 상태이다. (출처 : 관악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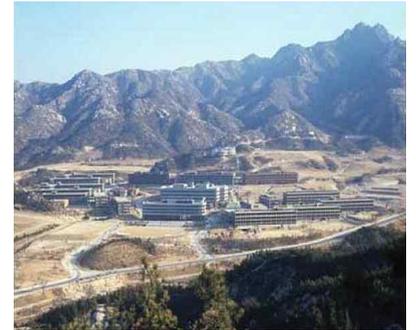


6) 서울대학교의 이전

1970년대 중반까지 서울대학교는 각 단과대학들이 총로구 동승동, 연건동, 종암동, 경기도 수원시 등 곳곳에 나뉘어 있었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1966년부터 1971년까지 동승동, 연건동을 메인 캠퍼스로 하는 '종합6개년계획'을 추진한다.

하지만 1967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이 계획안의 소규모성을 지적하고 서울대학교를 국제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는 큰 규모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다. 여러 곡절을 거쳐 1970년 3월 16일 관악구 신림동이 캠퍼스 부지로 최종 결정되어 1975년 2월 서울대학교가 관악구 신림동 산56-1번지로 이전하게 되었다.

국내 최고 권위의 서울대학교가 관악산 입구 신림동으로 이전함으로써 낙후된 관악구 지역은 새로운 활력을 갖게 된다. 특히 신림 9동 일대 하숙집에서 고시공부를 하던 서울대생들이 고시에 합격하면서, 고시공부를 하는 이들이 모여 들어 고시생태계를 갖춘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고시촌이 형성된다. (출처 : 관악백과사전)



7) 도림천 복개

관악산에서 발원하여 서울대를 끼고 내려오는 도림천은 하천의 폭이 협소하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금세 범람하여 저지대 주택이 침수된다. 1980년대부터 90년대에는 하천정비와 함께 일부 구간의 좌안 복개공사가 진행되었고, 서울대 정문 앞은 전면 복개가 이루어졌다. (출처 : 관악백과사전)



8) 고시촌

신림동의 고시촌은 국가고시를 준비하던 고시생들이 초창기 정보교류와 주거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70년대 후반부터 관악산 기슭의 고지대에 하나둘씩 하숙촌을 형성하며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 그 시발이다. 하숙촌 학생들 중에서 사법시험 합격자가 많이 배출되면서 지역에 대한 명성이 퍼져 고시생들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된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학동 주변의 고시학원과 고시전문 서점 등과 연계되어 고시원이 확산된다. 사법고시뿐만 아니라 행정고시, 외무고시, 공인회계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까지 다양화 되었다.

2000년 대학동 주민 약 26,000명 중 약 15,000명 정도가 서울대 학생 및 고시생이었으며 고시원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까지 합치면 고시인구가 약 4만~5만에 이르렀다고 한다. 주민들도 대부분 고시 관련 업종에 종사하며 거대한 고시산업 생태계를 이루었다. (출처 : 관악백과사전)



9) 봉천동 재개발 후



네이버 지도 항공뷰 봉천초교

1990년대 달동네를 대표하는 봉천동과 신림동의 재개발이 시작되었다. 많은 불량주택들이 철거되고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여 2000년에 입주를 시작하였다. 그 뒤로도 계속 재개발을 하여 현재 달동네는 거의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지금도 재개발이 진행중에 있다. 구 봉천동에서는 관악드림타운, 브라운스톤 아파트, 자이 아파트, 성현동 동아아파트, 관악푸르지오 아파트, 봉천우성 아파트 등 수많은 아파트를 볼 수 있다. 재개발 후

급격히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봉현초등학교가 2003년, 구암중학교가 2004년에 개교하였으며 그 후 8년 뒤 2012년에 비교적 늦게 구암고등학교가 개교하였다. (출처: 관악구청 홈페이지)

10) 관악의 현재

관악구는 2009년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했다. 이전에는 봉천동, 신림동에 숫자를 붙혀 나누었지만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동 명칭에는 지역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명칭들이 있다. 예를 들어 낙성대동(구 봉천7동)은 고려시대 명장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터인 '낙성대'에서 따왔으며, 인현동(구 봉천11동)은 강감찬 장군의 시호인 '인현'으로 정했다. 또한 구 신림9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인 서울대학교가 위치하고 고시원이 밀집된 곳이기 때문에 '대학동'으로 개명하였다. (출처: 관악구청 홈페이지)

학습활동

1. 다음 질문에서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시오. (3-1 황정현)

- 1) 신림동의 고시촌은 국가고시를 준비하던 고시생들이 초창기 정보교류와 주거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80년대 후반부터 관악산 기슭의 고지대에 하나둘씩 하숙촌을 형성하며 모여들기 시작하며 생긴 것이다. (o x)
- 2) 행운동과 신림동은 한때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유명했던 지역이다. (o x)

2. 다음 사진과 관련된 관악구의 행정동 이름 2가지와 그 의미를 적으시오. (3-1 남현준)



2. 강감찬 장군과 낙성대

(3-6 정수현, 3-3 최준영)

1) 강감찬 장군의 탄생 설화



강감찬 장군은 위인전을 읽었다면 유치원생도 들어봤을 이름입니다.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영웅이 탄생하는데 신화가 없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중 강감찬 장군의 탄생일화는 더욱 유명합니다.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어떤 사신이 한밤중에 시흥군으로 들어오다가 큰 별이 어떤 집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찾아보게 해보니 마침, 그 집의 부인이 사내아이를 낳았었다고 하는 설화가 존재합니다.

2) 강감찬 장군의 생애와 업적



984년에 태어났고 36세 늦은 나이에 장원급제를 하였고 45세에 정4품 벼슬에 오르고 46세에 서희와 함께 거란군을 무찌르고 67세에 고려망으로 넘어오는 거란군을 무찔렀습니다. 71세에는 홍화진에서 강물을 이용해 거란군을 물리쳤으며 72세에 전쟁을 하고 돌아가는 거란군을 귀주에서 크게 무찔렀습니다. (귀주대첩) 8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 낙성대



관악구의 낙성대역은 강감찬이 태어난 곳이며 일대기가 있는 곳이다. 낙성대역에는 낙성대 공원이 있다. 공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은 강감찬장군의 사당인 안국사(安國祠)로 안국문(의삼문), 삼층석탑, 내삼문, 고려강감찬장군사적비 그리고 본 건물인 사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낙성대공원에서는 강감찬을 기념하는 강감찬 축제를 열기도 한다.

사진과 자료 참고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강감찬 [姜邯贊] - 귀주대첩의 신화를 쓰다 (인물한국사)



3. 관악구의 유물&유적

(3-4 장민국)

1) 구 벨기에 영사관



구 벨기에 영사관은 1901년 벨기에와 한백수호통상조약을 맺어 지어진 건물이다. 1903년 착공해 2년 뒤 1905년에 준공했다. 1919년 이후 벨기에 영사관은 총무로 옮겨졌고, 일제강점기 일본 해군성 무관부 관저로 이용되었다. 광복 후 해군에서 사용하다가 1970년 상업은행(현 우리은행)에 불하하였다. 1981년 상업은행에서 건물을 완공한 뒤 2004년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으로 개관하였다. 현재 서울시립남서울미술

관은 문화예술지원산업의 일환이 되고 있다.

건물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약 405평이고 도리아식 석주와 이오니아식 석주를 사용한 좌우대칭 고전주의 양식 건축물이다. 1977년 11월 12일에 사적 제 254호로 지정되었다.

2) 관음사



1988년 7월 20일 관악 제1호로 등록된 관음사는 관악산 주봉에서 북동쪽으로 뻗어있는 마지막 봉우리의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라 진성여왕 9년(895년)에 창건됐다. 1977년에 준공되었고, 지금까지 그 모습을 갖추고 있다. 관음사란 명칭은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면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이 살피 증생을 구제하고 부처의 교화를 돕게 된다고 하여 관세음보살을 받드는 절이라는 뜻이다. (출처: 관악특별구)

3) 낙성대 3층 석탑



낙성대 3층 석탑은 낙성대공원 안국사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2년 5월 25일 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었다. 이 석탑은 강감찬 장군의 생가터에 있었지만 낙성대 공원 조성시 옮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강감찬 장군의 집터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석탑을 지었다고 한다. 고려시대 (13세기 경)에 만들어졌으며 화강암을 썼고 높이는 4.48m이다. 낙성대는 별이 떨어진 자리란 뜻으로 강감찬 장군이 태어날 때 별이 떨어졌다고 하여 이곳을 낙성대라 부른다.



4) 강감찬 생가터



고려시대 명장이었던 인헌공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집터로 태어난 날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하여 그 터를 낙성대라고 부른다. 이곳에는 사리탑식의 삼층탑이 세워져 있었지만 임진왜란 때 탑의 윗층을 빼서 한층 낮추기도 하였고, 탑 안에 있던 보물들도 훔쳐 갔으며, 석탑의 대석도 비틀어 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1964년 탑을 보수했고 1972년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었다.

학습활동

1. 서울 시립 미술관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 하나를 그려보고 감상을 써보자. (3-4 장민국)

	작품명 (작가/재료) :
.....	
.....	
.....	
.....	

2. 강감찬 생가터에 있는 비석에서 문장 하나를 옮겨 적어 보자. (3-4 장민국)



4. 관악의 역사적 인물

(30306 박현수)

1) 강감찬 장군(948~1031)



고려의 명장 강감찬장군은 948년에 금주 즉 현재의 봉천동에서 궁진의 아들로 태어났다. 처음 이름은 은천이다.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예부시랑(고려시대 관직)이 되었고 강감찬장군이 쓴 책으로 낙도교거집과 구선집이 있다. 1010년에 거란의 성종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했을 때 많은 신하가 왕에게 항복할 것을 권했으나 예부시랑으로 있던 강감찬 장군이 반대하여 위기를 면했다. 8년후 거란의 성종은 다시 10만 대군으로 고려를 침략했으나 강감찬 장군이 홍화진의 물을 막아 적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으며, 퇴각하는 적으로부터 귀주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것이 귀주

대첩이다. 1974년에 낙성대 성역화 작업을 마무리 하면서 장군의 일대기를 적은 강감찬 장군 사적비가 세워졌다. (출처 관악구청,구글)

2) 정정공 강사상(1519~1581)

강사상은 1519년에 태어나 1581년에 세상을 떠난 조선의 문신이며, 시호(죽은 뒤 붙은 존칭)는 정정공이다. 강사상은 24세가 되던 해에 진사시라는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28세에 식년 문과(시험)에 급제하였다. 1557년 동부승지(관직)가 되었으며, 다음해 우승지(관직)를 역임하고, 홍문관부제학(관직)이 되었다. 1561년에는 왕의 특별 명령으로 형조참판(관직)이 되었으며 선조 즉위후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570년에는 주청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조, 형조, 호조, 병조판서를 거친후 우의정에 오르기도 했다. 1581년에 세상을 떠나니 그의 나이 63세였다. 정정공의 사적을 기리는 비석은 서울시 관악구 난곡동에 있는 선영에 있는데 400여년 동안 내려오는 중요한 유물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104호로 지정받았다. (출처 : 관악구청,구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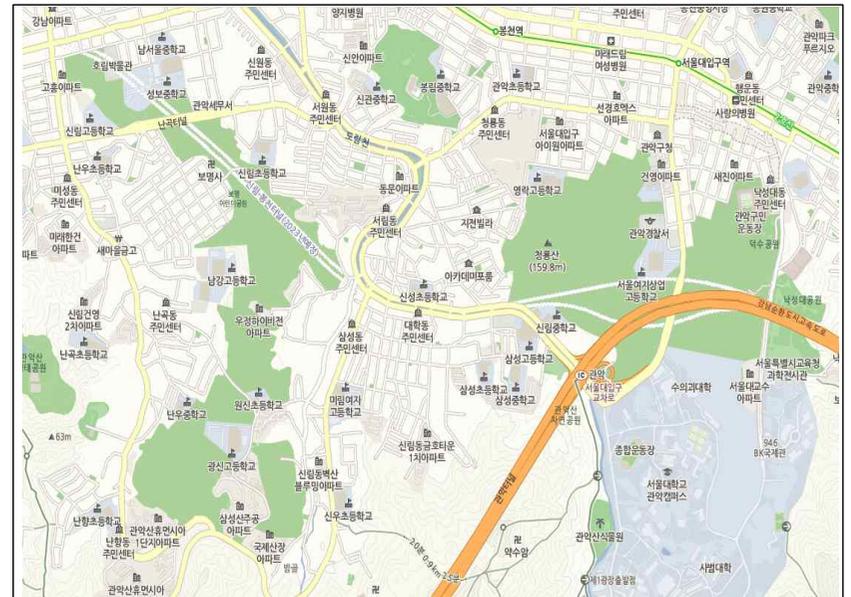


3) 강홍립 장군(1560~1627)

자는 군신, 호는 내촌이다. 할아버지는 우의정(조선시대 관직)을 역임한 강사상이다. 1597년에 문과로 급제하여 1605년에 도원수(조선시대 관직) 한준겸을 보좌하는 종사관이 되었고, 같은 해 진주사의 서장관(관직)으로 명나라에 갔다. 1608년에 보덕(관직), 1614년에 순검사(관직)를 역임하고 1618년에 진녕군(관직)에 봉해지는등 여러 지위를 맡았다. 이 해 명나라가 요동을 침범한 후금을 토벌하고자 조선에 원정을 요청하자, 도원수로 임명되었다. 과거 명나라가 조선에 원군을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정을 하게 됐지만 광해군의 걸로는 명나라를 도와주려 가는 것처럼 하고 싸워봐서 안될 거 같으면 청나라에 붙으라는 밀명을 따랐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강화에서 화해를 주선하여 일이 커지는 것을 미리 방지한 적이 있지만 국내의 정변과 외교 방침의 변화로 장군의 애국도 빛을 보지 못하고 관직을 박탈당하였다. 죽은 뒤에 다시 관직을 찾았다. (출처 : 관악구청 홈페이지)

학습활동

1. 강감찬 장군 사적비와 정정공 신도비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봅시다. (3-3 박현수)





5. 관악구 주민 인터뷰

(3-3 윤현정)

1) 관악구 은천동 거주중이신 김OO 주민



김OO주민 사진

관악구 은천동에 거주 중이신 김OO주민은 98년도에 동작구에서 관악구로 이사 와 20년간 관악구에서 거주 중이다. 관악구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고 주변에 산과 나무가 많아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공기가 깨끗하다고 답변을 해주셨고 마음이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지역 같이라며 관악구의 칭찬을 많이 하셨다. 관악구에 감사한 게 있다면 직장에 다니느라 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아 자주 놀아주지 못해 항상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낙성대 공원, 도림천, 관악산, 과학전시관 등을 이용하면서 딸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다고 한다. 또한 관악구는 정이 많은 지역이고 동네 주민과 가족처럼 친근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신다.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은 곳이고 관악구의 체육시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2) 관악구 남현동 거주 중이신 지OO 주민

관악구 남현동에 거주 중이신 지OO 주민분은 2005년도에 형제들과 함께 도봉구에서 관악구로 이사 와 7년간 관악구에서 거주 중이다. 관악구에 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주변 지인들이 거주하기 편한 곳이라고 말씀해주셔서 오게 됐다고 하셨다. 지OO 주민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많고 도서관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점이 관악구의 자랑인 것 같다고 하셨다. 그리고 요즘 반려견에 관한 문제들이 많은데 관악구에서 반려견과 행복한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반려견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프로젝트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하셨고, 반려견을 확대하고 버려지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지OO 주민분 사진

학습활동

1. 나는 관악구에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요?(ex:나는 관악구에서 최고의 학생으로 남고싶다!) (3-3 윤현정)

2. 나만 알기 아쉬운 관악구 주민이 계시다면 소개해주세요! (3-3 윤현정)



6. 관악의 괴담

(3-5 이재열)

1) 초인종 괴담

	MEAN DOG	# OF CHILDREN/WOMEN	
	PLANNING TO ROB	MONEY IN HOUSE	
	ALREADY VISITED	WATCH FOR NEIGHBORS	
	UNOCCUPIED	ALL CLEAR	
	SINGLE WOMAN	USELESS TO ENTER	
	# OF ROOMS	ALARM SYSTEM	
	TO BE AVOIDED DANGER	ALREADY ROBBED	
	WATCHED BY POLICE	NOTHING TO TAKE	
	HOUSE OF AN OFFICIAL PERSON	HIGH CHANCE OF BEING CAUGHT	
	NOTHING INTERESTING	WATCH FOR DOG - SAME AS ABOVE	

2009년 말, 서울 관악구를 시작점으로 사람들의 집 초인종 옆에 α, Xβ, XX, J, K처럼 의미 모를 알파벳들이 적힌 것을 발견한 주민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속출한 사건이었다. 이후 이야기가 퍼져서 사람들마다 자신의 집 앞 초인종 옆을 확인해보니 이런 정체불명의 알파벳이 적혀있는 것이 발견된 사건이다. 사람들 사이에선 범죄에 사용된 흔적이다, 신문배달부나,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써놓은 것이다 등등 여러 가설이 나왔지만 전국적으로 멀리 퍼져있어서 무리가 있다 생각하고 조금 더 찾아보았다. 그 결과 벨기에에서 도둑단체에서 그림과 같은 표식을 만들어, 각 초인종 옆에 표시해 놓고 실제 범죄에 사용했다는 유사한 결과가 있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표식들이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의 경우 충분히 범죄와 관련된 암호일 수도 있다는 괴담이었다.

2) 봉천동 귀신



2011년 꽤나 유명했던 괴담으로 봉천동 귀신이 있다. 지금 제시할 이야기는 학생이 아기를 찾는 귀신을 목격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다. 한 학생이 야자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관절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있고 머리카락이 단정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앞에 걸어가는 것을 목격한다. 그 학생은 집에 가는 방향이라 어쩔 수 없이 뒤에서 걸어가는 도중에 앞에 걷던 이상한 사람이 뒤를 돌아 자신의 아기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서 무서운 마음에 최대한 먼 곳을 가리키며 그곳에 있다고 말한다. 잠시 후 없는걸 보았는

지 귀신이 소리를 치며 학생에게 달려들어 기절했고, 깨어나 보니 경비아저씨와 주변 사람들이 와있었다. 사람들은 근처에 아무도 없었다고 했고, 얼마 전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양육권을 빼앗기고 이혼당한 부인이 투신자살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사람이 귀신이 되서 나타났다는 괴담이다.

학습활동

1. 초인종 괴담에 나오는 의미 모를 알파벳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서술하시오. (3-5 이재열)

2. 봉천동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으로 그려보고, 왜 귀신이 되었는지 자신의 상상력으로 서술하시오. (3-5 이재열)



7. 관악의 전설

(3-5 박선영)

1) 신림동 굴참나무



전설에 의하면 약 1,000년 전에 강감찬 장군이 이곳을 지나다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 놓은 것이 자라나서 현재와 같은 커다란 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삼림은 오랜 세월 동안 인위적인 식재와 육림으로 자원을 확보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전래의 숲을 참나무로 구웠으므로, 자연 번식으로는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나무와 같이 수형이 좋고 수관폭이 방대한 노거수는 남아있는 것이 드물다. 인근에는 강감찬 장군이 별당으로 사용하였다는 칠불사(현 은천사)가 있으며 실제 나이는 약 250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연 2회 음력 7월 1일과 10월 1일 수명 보존(목신)과 동리의 평안을 위하여 고사를 지내고 있다.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 271호로 지정되었고 소재지는 관악구 난곡동 721-2호이다. 옛날에는 음력 정월 보름날에 이 나무에게 마을의 평안을 비는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보기 드물게 몸집이 크고 보호 상태가 좋다.

2) 관악산 열녀암 전설



은 이 바위를 열녀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옛날에 아낙이 남편과 함께 아들, 딸을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를 시기한 악한이 아낙의 주인 남자를 찾아와서 “사냥하러 가자”고 유인하여 먼 곳으로 가서 살해하고 돌아와서 아낙을 유혹하여 보았으나 아낙은 유혹을 완강히 물리쳤다. 한편 남편이 살해된 사실을 모르고 아이를 등에 업고 아낙은 관악영산을 근거로 하여 넓죽한 망부대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하였다. 이 가혹한 정성에 감동되어 복두꺼비와 바둑이가 아낙을 다른 짐승으로부터 지켜주는 동안 아낙은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여 지성이면 감천으로 천지인삼덕(天地人三德)이 상응하여 천후에 맺힌 한이 서린 화석으로 변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구전되어 오고 있다. 그리하여 후대 사람들에



소감

■ 3학년 1반 3번 박지현

이번 프로젝트는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았다. 그 이유는 국어 수행평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로 전날 밤에 알게 되었고, 국어 수행평가 외에도 많은 숙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역할 분담 정할 때 내가 총편집을 한다고 자진해서 했었다. 나는 총편집이 좋은 줄 알았는데 편집하는 게 이렇게 힘들줄 몰랐고 너무 졸리다. 그래도 정현이가 보여준 「관악 백과사전」이 큰 도움이 되었다. 내용 전부 관악 백과사전에서 찾아 쓴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타자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 한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사진 하 이퍼링크 없애는 것도 애를 먹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번 조사를 통해 관악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안 것 같아 너무 좋다. 그리고 나는 관악의 역사를 조사하였다. 원래 관악의 역사는 내 담당이었지만 경모가 말이 안 되는 관악의 미래를 그래도 이번 수행평가를 통해 관악의 역사를 잘 알아가는 것 같아 좋다. 다시 생각하는 거지만 편집은 어려운 것 같다.

■ 3학년 1반 13번 황정현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힘들었다. 관악의 근현대에 관한 자료가 인터넷에서는 거의 없어서 자료수집에 차질이 있었을 뿐더러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주신 참고 자료를 찍은 사진을 실수로 지워버리는 바람에 관악 도서관으로 간 다음 사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2013구정백서」, 「관악의 어제와 오늘」, 「관악 백과사전」 등의 책을 빌려오는 생고생을 해야 했다. 게다가 월요일에 있는 사회, 영어 수행평가와 겹쳤기 때문에 주말동안 실 시간이 없어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고생고생 해서 만든 프로젝트지만 힘들었던 것에 비해 얻은 것도 꽤나 많았던 것 같다.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여러 책들과 인터넷 사이트들을 뒤져보면서 공부했던 것이 바닥을 치던 내 알팍한 지식을 조금이라도 채워줬던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 마을을 소개하는 마을 교과서에 내가 쓴 글이 들어간다는 것이 큰 영광이었다. 많이 힘들었지만 내 단에서 꽤나 유익했던 수행평가였는데 다음에도 이런 수행평가를 하게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

■ 3학년 1반 연경모

이번 프로젝트는 항상 국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다. 수업시간에 냅 놓고 있다가 마감 하루 전부터 열심히 하는 나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고쳐야 하는데 말이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한 달 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지만 그 후 소설 수업과 한글날 수업 등을 나가면서 잠시 잊었던 프로젝트였다. 그래도 우리 반만의 마을 교과서를 만든다니 열심히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주제를 정할 때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한 것 같다. 며칠 전에 낙성대공원에서 강감찬 축제가 열렸는데 생각보다 큰 축제여서 놀랐다. 1000년이 지나도 우리 지역 활성화에 앞장서시는 장군님이 존경스럽다.



■ 3학년 1반 남현준

이번 수행은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수업시간에 진행을 하다 보니 나름 할만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착오였다. 막상 작업을 해보니 정말 우리가 왜 주제를 이렇게 정해놨을까 라는 후회를 하게 되었다. 아무 생각없이 수업시간에 주제를 만들었던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수업시간에 열심히 해야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도 관악의 역사를 하면서 나름 조사를 하다보니 관악의 변천사를 알게 된 것 같다. 그래도 뭐라도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 조금은 뿌듯하다. 도대체 관악의 현재에 뭘 써야할지 고민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들어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지 않았다. 아 뭔가 샬로수 길이나 축제나 이런 걸 적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다른 모둠이 쓸 것 같아서 하지도 못하겠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상한 것만 적은 것 같다. 이래서 미리미리 모둠원들끼리 얘기를 하고 했어야 한 것 같다. 제출 하루 전에 주제에 대해 모둠원들과 했더니 결과가 딱히 좋지 않은 것 같다. 다음엔 미리미리 해야겠다는 다짐을 또 해본다.

■ 3학년 3반 최준영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관악구에 대해 더욱 많은걸 알게 되었던 것 같다. 나는 주제를 관악의 보물로 잡아 저번에 했던 관악의 보물 프로젝트를 관악중학교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보았고 우리 반의 관악의 보물만이 아니라 이번 마을교과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참고 하기 위해 다른 반에서 올린 것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관악구에 대해 많은걸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 지루하지 않고 재밌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다.

■ 3학년 4반 11번 장민국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교육을 책임진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다. 교과서는 교육에 있어 기초가 되는 요소이므로 항상 정확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설렘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긴장도 되었다. 함부로 잘못된 정보를 적는 경우는 일절 없어야하기 때문에 다른 문서를 많이 의지한 것 같다. 그리고 시험기간과 다른 수행평가와 많이 겹쳐서 내가 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 아쉽다. 내가 맡은 주제는 관악구의 유물과 유적에 대한 내용이다. 찾아보니 관악구에는 그런 곳이 많았다. 관악구에 살면서 모두 알지 못했던 것이 부끄러웠고 반성하게 되었다. 강감찬 장군에 대한 정보밖에 몰랐던 것이 한심해 보였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잘 알고 있어야 된 것 같다. 또한 조사했던 곳들을 모두 가보고 싶다. 어쩌면 마을의 얼굴이 될지도 모르는 마을 교과서. 내가 쓴 정보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한다.



III. 관악의 자연



1. 관악산

(3-1 권소연, 3-3 박태균, 3-4 배서현, 3-6 김서현)

1) 관악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과 경기도 안양시·과천시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한강 남쪽에 우뚝하게 솟아있는 산이며 높이는 632m이다. 그 뒤쪽으로는 청계산, 백운산, 광교산으로 연결되는 한남정맥이 이어진다. 산 정상부에는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모습이 갓을 쓰고 있는 모습을 닮아 관악산(冠岳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관악산은 빼어난 수십 개의 봉우리와 바위들이 많고, 오래된 나무와 온갖 모습의 바위와 어우러져 철따라 변하는 산 모습이 마치 금강산과 같다 하여 '소금강(小金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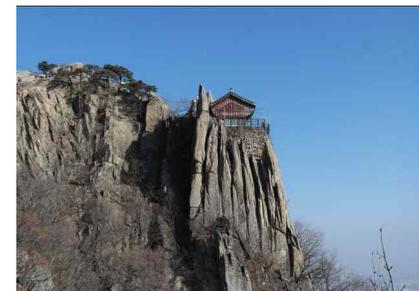
또는 서쪽에 있는 금강산이라 하여 '서금강(西金剛)'이라고도 하였다. 북한산·남한산·계양산 등과 함께 서울분지를 이층으로 둘러싼 자연의 방벽으로, 옛 서울의 요새지를 이루었다. 행정구역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금천구, 그리고 경기도 과천시와 안양시에 걸쳐있다. 1968년 건설부 고시 제34호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73년 관악구가 영등포구에서 분구되면서 산이름이 구의 명칭이 되었다.

곳곳에 드러난 암봉들이 깊은 골짜기와 어울려 험준한 산세를 이루고 있는 관악산은 산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도심에서 가까워 누구나 하루 일정으로 산에 오를 수 있는데 봄에는 관악산 입구 쪽으로 벚꽃이 만발하고, 철쭉이 필 때는 철쭉제가 열리기도 한다. 봄철에 무리지어 피는 철쭉꽃과 여름의 짙은 녹음과, 계곡 깊은 곳에 등폭포, 서폭포의 물소리가 장엄하고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이 명산 관악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관악산 정상에는 지상 레이더 관측소와 정상의 연주암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사찰과 암자가 있는데, 아슬아슬한 벼랑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연주대는 관악산의 모든 등산로가 집결하는 곳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관악산 [冠岳山] (두산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진출처 네이버 블로그

2) 연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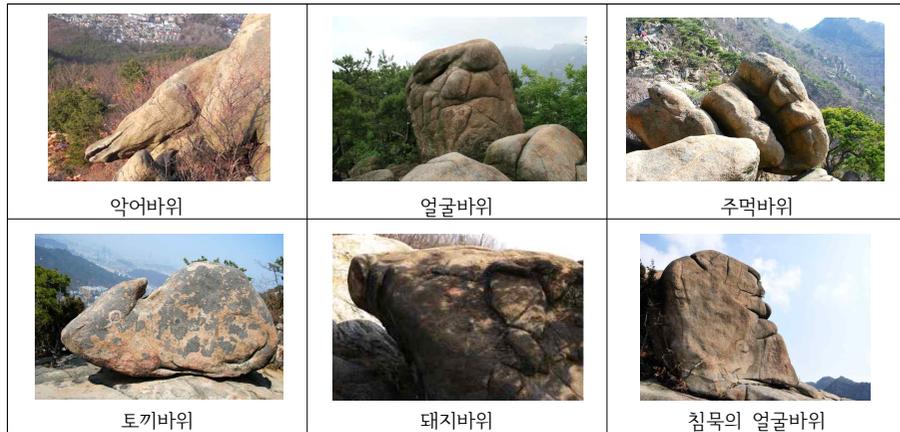


1973년 7월 10일 경기도기념물 제20호로 지정되었다. 관악산 최고봉인 연주봉에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절벽이 솟아 있는데,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약간의 석축을 쌓아 올린 곳에 연주대가 있다. 연주대란 이름은 조선 초에 개칭한 것으로, 태조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개국한 뒤 고려의 충신인 강득룡·서견 등의 유신들이 이곳에서 멀리 송경쪽을 바라보며 두문동에서 순국한 72인의 충신열사와 망국 고려를 연모하며 통탄하였다 하여 이름 붙여진 것이라고 전한다. 출처: 연주대 (두산백과) 사진출처 네이버 블로그



3) 기암괴석

관악산은 전체가 거의 화강암 한 종류의 암석으로 되어 있고 주위가 편마암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마치 큰 나무줄기가 편마암을 뚫고 나와 솟아 있는 듯 기암괴석들이 산세와 어울려 수려한 맛을 더하고 있다. 열녀암, 얼굴바위, 돼지바위, 목탁바위, 독수리바위, 악어바위, 주먹바위, 개구리바위, 사자얼굴바위, 토끼바위, 침묵의 얼굴바위 등 기묘한 형상을 한 바위들이 많아 산을 찾는 또 다른 재미를 더해 준다. 출처 관악백과사전 사진출처 네이버, 다음 블로그



4) 관악산 계곡



물놀이장 입구에는 남녀 탈의실이 있어 미리 수영복을 안 입고와도 되고, 계곡 바로 앞에 하얀색 천막이 쳐있어 아래에다 돛자리를 깔고 쉴 수도 있는 편리함도 있다. 그러나 각자 가지고 온 텐트는 건너편에다 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관악산의 계곡물은 전혀 깊지가 않아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운 물놀이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관악산계곡은 산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이라 계곡물은 비가 많이 오면 양이 많고 깨끗하지만 조금이라도 비가오지 않는다면 계곡의 물이 조금밖에 없어 발을 담글 수 있는 깊이라고 한다.



5) 서울둘레길 관악산 구간

서울 둘레길은 서울 외곽의 산과 산을 잇는 총 연장 157km의 원형 둘레길이다. 이 길을 걷다보면 우리가 사는 서울의 면면을 굽어보고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5코스 관악산 구간은 등산객들이 사랑해 마지않는 관악산의 둘레를 도는 것이다. 서울시 관악구와 금천구를 가로지르며 이어지는 이 길의 거리는 12.7km, 사당역에서 출발해 관음사, 낙성대공원, 서울대 정문, 천주교 삼성산성지, 호암사 등을 지나 석수역에 이르면 고박 반나절이 걸린다고 한다.

6) 관악산 둘레길



학습활동

1. 관악산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적어봅시다. (3-1 권소연)

2. 관악산 둘레길 구간 중 가고 싶은 구간을 하나 선택해 그 이유를 써봅시다. (3-4 배서현, 3-6 최지호)



2. 삼성산

(3-1 김지우)

1) 삼성산 개요



서울특별시의 관악구 신림동과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걸쳐 위치한 산이다. 신라 시대 때의 유명한 승려인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희대사가 도를 닦은 산이라는 것에서 삼성산(三聖山)의 이름이 유래되었다. 천주교 박해 사건이던 기해박해 때 자수하여 순교한 모방 신부, 앙베르 주교, 샤스탕 신부의 유골이 발굴 되어 이름이 알려졌다. 이후 1970년 세 순교자의 무덤을 찾아 1970년 5월 12일 삼성산 순교성지 기념비를 건립하여 축성식(가톨릭에서 예식과 기도를 통하여 사람이나 물

건을 축성하는 의식)을 가졌다. 출처 삼성산 [三聖山] (두산백과) 사진출처 한국관광공사

원효대사	신라시대의 승려. 648년 황룡사에서 스님이 되어, 각종 불전을 섭렵하며 수도에 힘썼다. 해로를 통하여 진리에 대하여 공부하려 타국에 가던 중, 해골에 권 물을 마시고 "진리는 결코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터득하고 의상과 헤어져서 돌아왔다. 신라시대 때 평민에게 불교를 전파한 것에 크게 힘을 쓴 인물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원효대사 (불교설화)
의상대사	신라시대의 승려. 625년 경주에서 태어나 644년 황복사에서 스님이 되었다. 650년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첩자로 몰려 사로잡히며 실패하고 신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661년 당나라의 사신을 따라 유학을 떠났다. 668년에는 <화엄일승법계도>라는 책을 썼다. [네이버 지식백과] 의상 [義湘(相)] (두산백과)

2) 기해박해



기해사옥이라고도 불리는 기해박해는 1839년 3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 천주교 박해 사건이다. 천주교 신자들을 근절하려 한 잔인한 대학살이었으나 권력자였던 안동김씨와 시파를 타도하려던 풍양조씨와 벽파의 정치적 계략이었다. 그러나 안동김씨 뿐 아니라 유명 신부였던 앙베르, 모방, 샤스탕 신부와 유진길 등의 무고한 신자가 많이 죽었다. 48명은 배교를 강요받아 배교하였고 1명이 목사, 118명이 사형 당하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벽파와 시파	사도세자라는 별칭을 가진 장헌세자는 영조의 둘째 아들로, 첫째 아들이던 효장세자의 사망 후 세자에 책봉 되었다. 이후 영조와의 갈등으로 정신병을 앓고 비행을 저지르다 폐위 된 뒤 뒤주에 갇혀 사망한다. 벽파와 시파의 파벌싸움은 결국 노론과 소론의 싸움과 다를 바가 없는데, 벽파는 노론에 가까운 입장으로 장헌세자의 죽음이 당연한 것이라 여겼다. 반면 시파는 소론에 가까운 입장으로, 장헌세자의 죽음이 안타까우며 추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앙베르	가톨릭의 성인이다. 부슈뒤론 데파르트망 출생. 1819년 신부가 되고 1837년에 제2대 조선교구 주교에 임명되어 한국에 들어왔다. 1838년 서울로 잠입하여 동료 신부들과 가톨릭의 전도, 교세확장에 힘써 오던 중 1839년의 기해박해 때 수원에서 체포되어 참수형을 당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앙베르 [Laurent Joseph Marie Imbert] (두산백과) 사진출처 [나무위키] 앙베르

학습활동

1. 기해박해 당시 순교하신 분들에게 편지를 써봅시다. (3-1 김지우)



3. 도림천

(3-1 진유성, 3-6 유성현, 3-3 김민지)

1) 도림천 개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산에서 발원하여 관악구·동작구·영등포구·구로구를 거쳐 신정교 근처에서 안양천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길이는 14.2km이다. 한강수계의 지방하천으로 안양천의 제1지류이다. 예로부터 근처에 풀이 많아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말을 기르던 양마장이 있었던 데서 마장천이라고도 불리었고, 관악산 기슭의 숲이 많아서 붙여진 신림동을 지난다 하여 신림천이라고도 불리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경기도 시흥군 복면 도림리가 되었고

이로부터 그 지역을 흐르는 하천이란 뜻으로 도림천이라 불리게 되었다. 하천 대부분은 완전복개나 부분복개가 되어 있다. 하천 주변은 대부분 주거밀집지역인 반면 상류부는 관악산공원의 녹지 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상류부는 급하고, 하류부는 완만하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도림천 (두산백과)



도림천 자전거 도로



도림천 산책로



도림천 놀이시설



도림천 분수시설



2) 현재의 도림천



도림천은 신림역 부근에서 대림역 부근까지는 부분 복개하여 서울지하철 2호선의 고가가 지나고 있으며, 도림천역을 지나 약 250m 후에 안양천으로 유입된다. 현재 도림천은 도림천이 경유하고 있는 구로구·관악구·양천구·영등포구에서 합심하여 지역의 생태 하천으로 복원시키기 위하여 2008년부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림천 생태 하천 복원사업'의 연계 사업으로 신도림동 도림천의 제방 산책로를 재단장하였다. 새롭게 단장된 구간은 신도림동 326~330번지 일대로 도림천 제방의 연장

500m에 보도블록 교체 작업을 완료하였다. 하천 옆에 자전거 도로, 산책길, 운동기구들이 있어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공간이 되었다. 과거의 더러운 모습에서 깨끗하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였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도림천 [道林川]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3) 도림천의 이용



▲자전거도로



▲조깅구간



▲밤이 됐을 때 도림천의 모습

1. 위 사진들처럼 평소에는 저렇게 이용하고, 밤이 되면 벽이 빛나서 보기 좋습니다.
2. 자전거도로는 빨간색, 조깅구간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으니 잘 구별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3. 주의할 점은, 강 깊이가 그리 깊지 않지만 여름 폭우 때는 물이 넘치기에 위험한 도로가 됩니다. 그러나 봄, 가을, 겨울에는 자전거타기에 아주 좋습니다.

도림천에 대해서 이용안내를 받고 싶다면 02-879-6560-61(관악산공원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해보세요.

물놀이장		<p>도림천 어린이 물놀이장은 워터드로, 야자수버켓, 기린벤치 등 물놀이 시설이 설치돼 멀리 나들이를 가지 않아도 무더운 여름, 도심 속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탈의실,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구비했으며, 특히 수질과 안전을 고려해 매일 2회 수조청소와 수돗물 공급·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청결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합니다.</p>
얼음썰매장		<p>도림천은 하천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추워서 하천이 공공 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올라가도 안전할 정도로 공공 얼면 도림천에서는 얼음썰매장을 설치하고, 6세 이하의 유아를 위한 별도의 공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방기를 갖춘 휴게소와 이동식 화장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썰매장은 철저한 관리와 안전요원 상시 근무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겨울철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p>



4) 도림천 식물

<p>개나리</p>	<p>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의 한해살이풀. 멕시코가 원산지이며 관상용으로 흔히 심는다. 잎은 마주나고 타원형이며 톱니가 있고 길이가 3~12cm이다. 2회 깃꼴로 갈라진다. 꽃은 6~10월에 핀다. 가지 끝이 밑으로 처지며, 잔가지는 녹색에서 회갈색으로 변하고 꺾질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잎 양쪽 모두 털이 없다. 잎자루는 길이 1~2cm이다.</p>
	<p>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의 한해살이풀. 멕시코가 원산지이며 관상용으로 흔히 심는다. 잎은 마주나고 2회 깃꼴로 갈라진다. 꽃은 6~10월에 핀다. 가지와 줄기 끝에 두상화(頭狀花:꽃대 끝에 꽃자루가 없는 작은 꽃이 많이 모여 피어 머리 모양을 이룬 꽃)가 1개씩 달린다.</p>
<p>벚나무</p>	<p>쌍떡잎식물 이판화군 장미목 장미과의 낙엽교목. 꽃은 4~5월에 분홍색 또는 흰색으로 핀다. 열매는 등글고 6~7월에 적색에서 흑색으로 익으며 버찌라고 한다. 높이는 20m 정도 된다.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 또는 달걀 모양의 바소꼴로 끝이 급하게 뾰족하며 밑은 등글거나 넓은 예저로 길이 6~12cm이다. 잎 가장자리에 침 같은 겹톱니가 있다.</p>
<p>노랑창포꽃</p>	<p>외떡잎식물 백합목 붓꽃과의 여러해살이풀. 유럽 원산이며 연못가에 많이 심는다. 꽃줄기는 가지가 갈라지며 높이는 60~100cm이다. 잎은 길이 약 1m이고, 너비 2~3cm이다. 꽃은 5월에 노란색으로 피며 꽃 밑에 2개의 큰 포가 있다. 외화피는 3개로 넓은 달걀 모양이고 밑으로 처지며 밑부분이 좁아지고, 내화피는 3개이며 긴 타원형이다.</p>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학습활동

1. 도림천의 개선해야 할 점들을 적어보시오. (3-1 진유성)

2. 도림천 복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쓰시오. (3-3 김민지)



4. 낙성대 공원

(3-6 김서현, 3-4 송단아)

1) 낙성대 공원 개요



어떤 곳?: 낙성대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이순신의 한산도대첩과 더불어 우리 민족이 외적을 물리친 3대첩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거란침략군이 세 번을 침공했지만 귀주에서 물리쳐 큰 승리를 거둔 바로 '귀주대첩의 영웅인 강감찬 장군'(출생 948~1031)의 탄생지이며, 낙성대를 보존하고, 강감찬 장군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곳이라고 합니다.

특징: 낙성대는 197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었는데, 강감찬장군의 애국충정을 기리고자 우리 관악구는 1973년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면서 안국사라는 사당과 부속건물을 신축하고 관악구 봉천동 218번지에 있던 삼층석탑을 이전하여 1974년 6월 10일에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성대는 강감찬 장군이 태어날 때 출생지에 큰 별이 떨어졌다는 전설에 따라 별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2) 위치&가는 방법

위치: 낙성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77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관악구민종합 체육센터와 과학전시관이 있어 낙성대를 비롯한 다른 곳에서도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는 방법: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낙성대역 4번 출구로 나오면 LG락성주유소가 있는데, 락성주유소 바로 옆에 버스나 사람이 지나가는 8m정도 되는 길로 들어서면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악02버스를 타고 낙성대공원 앞에서 내리면 됩니다. 또한 낙성대입구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는 5413번 5524번 5528번 5520번 461번 641번 643번 8541번 650번 버스가 있으니 이 버스들을 타고 이동해도 됩니다.





3) 낙성대 공원 안내



낙성대공원 안에는 안국사, 3층 석탑(서울시 유형문화재), 관리사무소, 전통야외소극장, 주차장, 화장실, 매점, 기념광장, 강감찬장군 동상, 열린마당, 구민체육센터, 홍살문, 임시화장실이 있으며, 안국사에서 바깥 쪽으로 안국사, 내삼문, 3층 석탑, 사적비, 안국문, 기념회회석, 강감찬 전시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국사		안국사는 귀주대첩의 영웅 강감찬 장군을 기리기 위해 1973년에 세운 사당이며 강감찬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기도 하다. 낙성대공원의 연못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기념 휘호석과 관리사무실이 있으며 안국문(安國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 외삼문을 통과하면 잔디와 수목으로 깔끔하게 조경한 넓은 정원이 펼쳐진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안국사 (두산백과)
고려 강감찬 장군 사적비		1974년에 장군의 일대기를 적은 강감찬 장군 사적비를 세워 장군의 애국충정과 호국의 얼을 후세에 전하고 있다. 출처 : 에듀넷
삼층 석탑		197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었다. 삼층석탑은 낙성대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고려시대의 옛 자취이다. 1층 몸돌에는 '강감찬낙성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강감찬 장군은 거란의 침략을 막아내는 데 큰 공을 세우는 등 구국제민을 위해 일생을 바쳐 백성들의 흠모와 존경을 받았고 백성들은 장군의 공적을 찬양하기 위해 장군의 집터에 사리 방식의 삼층석탑을 세웠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낙성대 삼층석탑 (두산백과)



4) 낙성대 공원의 둘레길



낙성대공원의 자체가 자연이 되기도 하지만, 자연 속을 더 느끼고 싶다면 낙성대공원의 둘레길을 산책하면서 자연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레길에는 자작나무숲, 소나무군락지, 참나무 숲, 사시나무군락지, 전나무길, 버즘나무 숲이 형성되어 있으며 산책로의 길이는 총3km이고, 공원을 꼼꼼히 돌아보려면 약 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체험활동 둘레길 순서: 강감찬 장군 동상 → 안국사 → 자작나무숲 → 소나무 숲 → 참나무 → 사시나무숲 → 전나무길 → 버즘나무 숲

5) 낙성대 공원 도서관



낙성대공원 도서관은 바로 매점 앞에 있으며, 앞뒤로 출입구가 있습니다. 이곳을 숲속 동화그늘이라고 하는데, 맑고 밝은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책과 자연스럽게 접하며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용시간은 평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주말에는 9시부터 17시까지 한다고 하는데, 개방을 하지 않는 날은 매주 화요일과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책도 빌릴 수가 있는데, 도서관 앞쪽에 무인도서반납함이 있다고 하네요. 무인 반납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8시부터 9시까지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17시부터 9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학습활동

1. 낙성대공원에서 놀았던 자신의 모습을 일기 형식으로 써보자. (3-6 김서현)



6. 관악구 도시텃밭

(3-4 정대현, 3-2 조성지)

1) 서울대학교 옥상 빗물텃밭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건물(35동)에 위치한 840㎡규모의 텃밭이다. 2013년 서울대학교 한무영 교수의 제안으로 조성되었는데, 이름 그대로 빗물을 이용하는 텃밭이다. 빗물을 효과적으로 모으기 위해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고 가장자리를 높였다. 총 저류량은 170t, 모인 빗물은 청소,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농업용으로 쓰인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는 이 텃밭을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2017년 6월에는 감자를 수확해 관악구 독거 노인 가정에 기부하는 행사도 진행했었다. 이렇게 조성된 빗물텃밭은 정을 되살리는 사회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홍수 예방 효과 및 함께 텃밭을 일구어 지역 주민간의

2) 강감찬텃밭



강감찬 텃밭은 2016년 8월에 조성된 친환경 도시텃밭으로 2016년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분양 신청자 모집 결과 750구획에 645명이 선정되었고 이 신청자들은 임대료 없이 2016년 8월 말부터 11월까지 텃밭을 임시 운영하게 되었다. 그 후 2016년 8월 29일 친환경 도시텃밭을 임시 개장함으로써 그 시작을 알렸다. 임시 개장이 끝나고 2017년 3월 2일부터 10일까지 텃밭 사용을 접수받았으며 이들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텃밭 사용이 가능하다. 이후 2017년 4월 14일 정식으로 '친환경 도시텃밭 개장식'이 개최되었는데 이날 개장식에 참석한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생활공간에서 도시농업을 체험하며 흙냄새를 모르는 아이들과 흙냄새가 그리

운 어르신께 건강한 휴식과 소통의 기회를 선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관악의 텃밭에서 도시농부가 되어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 잠시 동안 자연을 누려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sljinjoo/220805419884>)



3) 청룡산 주민텃밭공원



청룡산 주민 텃밭 공원은 2011년 9월 개장하였으며 1구획 당 5만원에 분양이 이루어졌고 주민텃밭, 바비큐장, 화초원, 생태연못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주민텃밭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원 관리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최초의 주민참여형 공원으로 이곳에서 좋은 공기와 함께 주민들과의 소통을 즐길 수 있다.

(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rose3274/221104707420>)

4) 강감찬 텃밭, 낙성대 텃밭, 청룡산 텃밭의 이용



강감찬 텃밭



낙성대 텃밭



청룡산 텃밭

낙성대동 259-1일대(낙성대공원 건너편), 낙성대동 231-2일대(낙성대공원과 과학전시관 사이), 청룡동 665-90일대(청룡산)에 위치한 텃밭이다. 도시농업 체험과 공동 작업을 통한 이웃간 소통 증대 및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관악구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분양 가능하고 10㎡당 분양가는 5만 원인데, 분양자는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4월 중순에 개장해 12월 말까지 운영한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아시아경제, 관악구청 홈페이지, 관악구 정책실장 정창교 블로그, 도시농부 서연 블로그, 빗물/중수 설계·시공 해성엔지니어링(주)

학습활동

1. 빗물텃밭의 장점이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3-4 정대현)



7. 관악의 식물

(3-6 김서현, 3-3 박태균)

1) 참나무의 종류



신갈나무: 옛날 짚신에 이 잎을 깔아서 신었다고 하여 신갈나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나무과의 잎지는 넓은 잎 큰키나무로 키 30m 정도로 곧게 자라는데, 참나무 종류 중에서는 줄기가 매우 곧은 편입니다. 그리고 산 중턱 이상에서 자라고 울퉁불퉁한 깎정리를 쓴 타원형의 도토리꼴이 달린다고 합니다.



상수리나무: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임금의 수라상에 이 나무의 열매로 만든 도토리묵을 만들어 올렸다고 하는데 수라상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다고 해서 상수리나무라 불렸으며 열매는 참나무 중에 가장 맛이 좋고, 도토리도 가장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떡갈나무: 잎으로 떡을 찼다고 하여 떡갈나무라고 하는데 떡갈나무로 찐 떡을 쪄면 갈잎 향이 떡에 배어 쉽게 변질되지 않는다고 하고 중국의 '박라병'과 일본의 '가지와모찌'도 이 나무의 잎으로 찐 떡이라고 합니다.



졸참나무: '졸병'이란 의미의 '졸'자를 사용하는데 다른 참나무랑 비교했을 때 잎과 열매가 가장 작아서 졸참나무라고 하고 졸참나무의 도토리는 다른 참나무의 도토리보다 짧은 맛이 덜하고 열매의 속껍질이 쉽게 분리되어 목을 만들었을 때 맛이 좋다고 합니다.



굴참나무: 줄기가 세로로 굵게 갈라진다는 의미에서 굴참나무라고 이름 붙여졌다고 하는데 나무껍질로 와인병의 코르크 마개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하고, 또한 과거 산간지방의 굴피집(두꺼운 나무껍질로 지붕을 이은 집)을 지을 때도 지붕재료로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갈참나무: 다른 참나무에 비해 가을 늦게까지 잎이 달려 있어 가을 참나무라는 의미의 갈참나무입니다.

2) 자작나무

<p>껍질</p>		<p>줄기의 껍질이 종이처럼 하얗게 벗겨지고 얇아서 이것으로 명함도 만들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사랑의 글귀를 쓰기도 하는 낭만적인 나무라고 합니다. 이 껍질은 거의 기름기여서 오랫동안 썩지가 않아 신라시대의 고분 속에서 자작나무 껍질에 글자를 새겨 놓은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p>
-----------	--	---



꽃		암수한그루로서 꽃은 4월에 피고 암꽃은 위를 향하며 수꽃은 이삭처럼 아래로 늘어집니다.
열매		열매이삭은 밑으로 처지며 길이 4cm 정도이고 열매는 9월에 익고 아래로 처져 매달립니다.

3) 소나무

새가지: 새로 싹터 자라서 굳어지지 않은 어린 상태의 가지

수피: 나무줄기의 코르크 형성층보다 바깥 조직(수피사진은 아래)

코르크: 식물 세포의 세포벽에 식물 보호 조직이 모여 싸인 세포층

잎		바늘잎은 2개씩 뭉쳐나고 길이는 8~9cm, 너비는 1.5 mm이며 2년이 지나면 나무 밑 부분의 바늘잎이 떨어집니다.
꽃		꽃은 5월에 피며 암꽃과 수꽃이 한 나무에 달리고 모양과 색깔이 다르며 수꽃이 조금 먼저 핍니다. 수꽃은 길이 1cm 정도의 타원형이고 새가지 아래쪽에 이삭처럼 빙 둘러 달리며 꽃이 피면 노란 꽃가루가 많이 나옵니다. 그 반면 암꽃은 수꽃보다 작은 지름 6mm 정도의 타원형이고 새가지 끝에 2~3송이씩 달리며 자주색을 띵니다.
열매		솔방울은 계란형으로 길이 4~5cm, 지름 3~4cm이나 나무의 나이에 따라 크기에 차이가 심하다고 합니다.
수피		붉은 빛을 띵 갈색이나 밑 부분은 검은 갈색이고, 소나무라고 다 같은 수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관악산의 야생화

닭의장풀		관악산 정상 부근 양지바른 곳에 닭의장풀이 많다. 닭장근처에서 잘 자라 붙여진 이름이다. 달개비·닭의 밭씻개라고도 한다. 길가나 풀밭, 냇가의 습지에서 흔히 자란다.
벌개당굴		꽃이 많아 벌들이 찾는다고 이름에 벌이 붙었고, 앞은 깎았을 닮아 개가 붙었다고 한다. 당굴식물이라 당굴이고 산지의 그늘진 곳에서 자란다.
등굴레		이명으로 맥도등굴레, 애기등굴레, 좁등굴레, 제주등굴레 등이 있으며 약재명은 옥죽이다. 산과 들에서 자란다. 열매는 등굴고 9~10월에 검게 익는다.

(출처:네이버지식백과 벌개당굴, 등굴레 야생화도감, 네이버지식백과 닭의장풀 한국식물생태보감)

학습활동

1. OX퀴즈를 해보자. (3-6 김서현)

- 1) 참나무의 종류는 6가지이다. ()
- 2) 소나무의 바늘잎은 1년이 지나면 떨어진다. ()
- 3) 자작나무의 껍질은 거의 기름기여서 잘 썩지 않는다. ()

2. 관악산에 있는 마음에 드는 야생화를 그리고 조사하시오. (3-3 박태균)



8. 관악의 곤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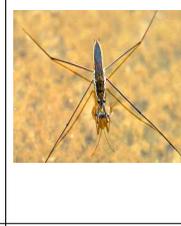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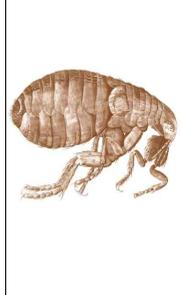
(3-1 강문준)

1) 관악의 날아 다니는 곤충 BEST3

고추잠자리		배길이 약 28~32mm, 뒷날개길이 약 33~36mm이다.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잠자리는 몸 전체와 날개가 오렌지색이고 앞가두리맥과 밑부분의 기부는 짙은 오렌지색이며 배마디 옆면에는 작은 톱니 모양이 발달해 굽어 보인다. 성숙한 수컷은 몸 전체가 붉게 변하는데, 날개 밑부분은 붉은색으로 변하고 나머지 부분은 투명해진다. 성숙한 암컷은 희미한 오렌지색으로 변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고추잠자리 (두산백과)
호랑나비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며, 개체수가 많다. 연 2~3회 발생하며, 3월 말부터 11월에 걸쳐 나타난다. 봄에는 산길을 따라 능선부로 올라오는 개체를 쉽게 볼 수 있으며, 여름에는 산지뿐만 아니라 숲 가장자리 및 도시 공원 꽃밭 등 다양한 곳에서 관찰된다. 1883년 영국 작가인 버틀러가 인천지역의 표본을 사용해 호랑나비종로 처음 기록했으며, 현재의 국명은 석주명에 의한 것이다. 국명이명으로는 조복성과 김창환의 '뱀나비'가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호랑나비 (한반도 나비 도감)
꿀벌		꿀벌은 벌목의 재래꿀벌과 양봉꿀벌을 통칭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토종벌은 재래꿀벌을 지칭한다. 꿀벌은 꿀을 제거하기도 하며 화분 매개 등 인간생활에 매우 큰 도움을 주는 곤충이다. 우리나라 토종벌인 재래꿀벌은 아시아가 원산지인 반면, 꿀의 생산성이 높은 양봉꿀벌은 유럽이 원산지이다. 양봉꿀벌은 서양벌이라고도 한다. 재래꿀벌은 양봉꿀벌보다 크기가 다소 작은 반면 날개는 조금 더 큰 편이다. 재래꿀벌의 몸통에는 검정 바탕에 흰 줄이 있고, 양봉꿀벌의 몸통에는 노란 바탕에 검은 색 줄이 있다. 재래꿀벌은 양봉꿀벌에 비해 추위에 견디는 능력이 좋다고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꿀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관악의 기어 다니는 곤충 BEST3

한국홍가슴개미		몸길이 일개미 8~12mm, 암컷 약 16mm이다. 일개미의 몸빛깔은 흑색이며 가슴은 암적색이다. 몸에는 갈색의 잔털이 나있고 긴 센털도 성기게 있다. 날개는 담갈색이며 반투명하다. 수컷은 온몸이 흑색이며 날개는 5~7월에 나타난다. 지대가 낮은 곳에서도 발견되나 해발 500m 이상의 산지에 많이 분포하며 울창한 산림이나 숲, 암석이 많은 지역의 나무 기둥이나 뿌리 속 등에서 산다. 일본에 서식하는 홍가슴개미와 유연관계가 비슷한 종류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홍가슴개미 (두산백과)
옛 소금		몸길이 6.5~10mm이다. 무시형 장시형 2가지가 있다. 무시형의 몸은

쟁이		흑색이고, 비교적 폭이 넓은 소형종으로서, 머리는 흑색, 정수리 기부의 불명료한 v자 모양 무늬가 갈색이며, 더듬이 및 주둥이는 흑색이다. 몸 모양은 가운데 다리흠타기의 위치에서 앞쪽 및 뒤쪽으로 뚜렷하게 가늘어지고, 더듬이는 몸 길이의 반보다 약간 짧다. 앞가슴등은 작고, 뒤끝은 반원형이며 가운데가슴등 뒷가장자리까지 덮었다. 후엽의 양쪽 가장자리는 거의 평행하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옛 소금쟁이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지식정보 : 곤충)
벼룩		몸길이 2~4mm이다. 좌우로 밀어붙여 세로로 납작한 모양이며 날개가 없고 겹눈이 없으며 보통 2개의 홀눈만 있다. 더듬이는 짧고 굵으며 3마디이고 머리의 가로홈에 들어 있다. 입은 피각을 찢러 흡혈하는 데 적응되어 있다. 다리는 잘 발달되어 밀마디는 매우 크고 발목바디는 5마디, 뒷다리는 도약하는 데 적합하다. 배부는 옆에서 보면 난형에서 타원형이 보통이며 말단 마디 등면에는 특수한 감각기가 있다. 암수 모두 흡혈하는데 암컷이 크다. 벼룩이 한번 뛰어 오르는 높이가 최대 20cm, 거리는 35cm나 도약한 기록이 있다. 벼룩은 페스트(병) 외에도 발진열(병)을 매개한다. 세계 각지에 널리 분포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벼룩 (두산백과)

학습활동

1.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곤충을 하나 그리고 색칠하십시오. (3-1 강문준)



2. 고추잠자리 잡으면 물게 되는 벌금과 벌금을 받는 지역 또 그 이유를 적으시오. (3-1 강문준)



소감

■ 3학년 1반 1번 강문준

나는 지금 이 프로젝트를 3번째 하고 있다. 정말 저장을 했는데도 날아간 컴퓨터가 원망스럽고 친구들한테 미안하며 선생님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번 기회에 안하던 곤충 채집을 해서 관찰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려고 했는데 잡고 난 후 생각해보니 이게 무슨 곤충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관찰만 하다 풀어주고 알고 있는 지식+인터넷 조사로 프로젝트를 끝 마쳤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새로운 점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만 발견된 거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름은 한국 땅 거미이다. 이것을 꼭 넣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거미는 곤충이 아니라 넣지 못해서 나만 알게 되었다.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여 프로젝트가 끝이 났다. 지금 나는 매우 힘들고 내가 스스로 대견스러웠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3학년 1반 11번 진유성

이번 프로젝트는 아무런 일도 안했는데 버스 탄 기분이었습니다. 권소연이랑 김지우에게 정말 미안하고 이번 마을 교과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관악구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도립천도 잘 몰랐는데 급하게 조사를 하다보니 신기한 것들이 많아서 조금 더 집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준이가 조사한 곤충도 많이 안 들어본 생소한 곤충들이 많았는데 관악구에 16년살면서 처음 들어본 곤충들도 몇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도 저희 반 아이들이 만든 마을교과서를 보면서 새로운 지식들을 하나하나 얻어갔으면 참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수행평가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협조를 잘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3학년 1반 22번 권소연

관악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조사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다. 관악구에는 관악산이 있구나... 정도만 알았지 이름이 왜 관악산이고 관악산의 위치와 높이 그리고 관악산 안에 있는 것들은 몰랐다. 바위 중에 토끼바위, 얼굴바위, 침묵의 얼굴바위, 주먹바위, 악어바위 등등 동물이나 사람 신체부위를 닮은 바위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관악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인 관악산을 구석구석 알 수 있었다. 나도 관악산을 등반해본 적이 있는데 내가 몰랐던 장소와 기묘한 현상을 한 바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다음에는 관악의 역사나 관악의 축제를 해보고 싶다. 열심히 한 만큼 알찬 교과서가 나왔으면 좋겠고 뜻깊었던 시간이 된 것 같다.

■ 3학년 1반 24번 김지우

관악구 안에 있는 산 중 아는 산은 관악산밖에 없었는데 삼성산을 조사하며 '기해박해'라는 사건과 관련 되었으며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대사 등이 방문하여 도를 닦은 산도 관악구 내에 있다는 점이 신기했다. 신라시대의 불교와 조선후기의 천주교가 한 산에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신기했고, 한 번도 등반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된다면 올라가보고 싶었다. 이 산을 조사하며 여러 블로그에도 들어가 봤는데 예쁜 산 길이라는 글이 많았다. 또, 기해박해라는 사건이 일어나 성지도 있다고 하니 그 곳도 둘러보고 싶다. 파벌싸움인데 민간인까지 학살한 기해박해 당시 순교하였던 성인 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 3학년 2반 11번 조용비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관악구 인근 주민 분들에게 기본 적 없거나 들어는 봤는데 여인지 몰라 가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어 정말 부듯하고 관악산 계곡에 많은 분들에게서 놀러 오시면 좋을 거 같다. 분명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마철엔 가지 않는 게 좋다. 건장한 나지만 몰살에 휩쓸려 하류까지 내려갈 뻔 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물 냄새가 장마철엔 좋지 않으니 가지 않는 게 좋다. 이왕이면 비가 그친 후나 그 전이 좋다. 모두들 한번쯤은 관악산 계곡에 가셨으면 좋겠다.

■ 3학년 2반 25번 김하연

이번 프로젝트는 저번에 했던 수학여행 프로젝트랑 비슷했던 것 같다. 아마도 이 프로젝트는 조금 더 의미 있었던 것 같고 빨리 이 교과서를 완성시켜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금 엉망으로 만든 것 같아서 미안했다. 그래도 조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고마웠고 우리 관악구의 자연에 대해서 한 번 더 찾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나는 특히 집 주변에 있는 곳을 해서 그곳에 직접 가서 찾아보기도하고 알아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집 주변의 나무들도 꽃들도 하나하나 찾아 볼 수 있었고 좀 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암튼 우리 프로젝트는 뭔가 재미있었고 좋았던 것 같다.

■ 3학년 2반 28번 조성지

나는 지금까지 관악구에 관한 수많은 프로젝트를 거치면서도 아직 관악구에 대해 큰 흥미를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마을 교과서를 만든다는 주제의 이번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우리 동네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었고 내가 쓰는 글들이 누군가에게는 우리 마을로 오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믿음에 더욱 부듯함을 느끼며 참여했다. 평소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자연'이라는 주제를 맡은 우리 조는 관악구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자연이 관악산 밖에 없어 난감해 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오산이었고 조사 결과, 여러 공원과 텃밭, 계곡 등의 자연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으며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동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맡은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나의 주제였던 '인간이 만든 자연'을 조사하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나 또한 도시의 농부가 되어 여유로운 휴식을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마을 교과서로 많은 사람들이 관악구를 찾아오길 기대해보며, 나 또한 관악구의 매력이 느껴지는 또 다른 장소를 끊임없이 찾아보며 우리 동네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키워나갈 것이다!

■ 3학년 3반 김민지

이번 프로젝트는 직접 관악구 교과서를 만드는 것 같아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했다. 전에도 교과서를 만들어봐서 그러지 더 능숙하게 만들 수 있었다. 동네도 잘 아는 우리 동네를 하기에 오랫동안 주민으로 산 나는 잘 알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다 조사하면서 몰랐던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더 알게 된 것 같다. 그래서인지 평범하고 당연하게 보이던 마을의 모습이 새삼 조금은 다르게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관악구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우리가 만든 교과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엄청 부듯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우리 동네의 매력을 모두 알아줬으면 좋겠다.



■ 3학년 3반 5번 박태균

이번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서로 약간의 다툼들이 있었지만 금방 서로서로 협력을 하여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의 자연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 같고 또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모던 것들을 알게 돼서 꽤나 유익한 프로젝트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관악산에 대하여 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도립천 낙성대 공원에 대하여 등 다른 곳에 대하여 조사했다. 나도 열심히 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다.

■ 3학년 3반 반진영

이번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솔직히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기도 싫었고 어려울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프로젝트를 해보니 생각보다 하는 것도 쉽고 인터넷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그런지 내용을 찾는 데도 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낙성대공원을 잘 몰랐지만 더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 참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다. 무엇보다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다.

■ 3학년 4반 9번 이동규

이번 프로젝트는 마을 교과서 만들기 프로젝트였다.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했다. 그리고 마을교과서 만들 때 학습활동은 뭐고 소단원 제목은 뭘로 했는지 생각이 안 났지만 겨우겨우 만들었다.

■ 3학년 4반 정대현

내가 맡은 주제인 도시 속의 텃밭은 작은 텃밭이기도 하고 이웃을 알아가는 나눔의 울타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배추, 무, 파 등 우리가 식탁에 올라오는 각종 채소들이 자라는 걸 보며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배우는 관악구의 아름다움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관악구의 아름다움을 알게 해준 이번 마을 교과서 만들기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을 것 같다.

■ 3학년 4반 25번 배서현

이번 프로젝트는 쉬울 듯 어려웠다. 주제랑 의논을 할 때는 굉장히 쉬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마을 교과서 양식을 보니 앞이 막막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관악산이라는 주제를 맡았는데 설명, 사진, 내용 등이 많이 있어서 다른 애들보단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도 어려웠다. 선생님께 보여주시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마을 소개 책을 보고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고 참고를 많이 할 수 있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음엔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우리 마을을 조사하면서 내가 몇 십 년 살던 우리 마을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었고 뜻 깊었다.

■ 3학년 4반 27번 송단아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살고 있는 관악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해주었던 프로젝트다. 나는 관악구의 공원을 주제로 잡고 낙성대공원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가던 낙성대공원이어서 내가 좀 아는 곳이라 조사하기가 훨씬 수월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을교과서를 편집하는 기간이 짧아서 짧은 기간내에 만드니까 좀 어설픈 부분이 있기도 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가 직접 마을에 대한 교과서를 만들어보는 것이라 새로웠고 뿌듯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던 프로젝트였다.



IV. 관악의 문화

1. 관악의 공방과 소극장

(3-1 김혜림, 이하영)

1) 관악의 공방



공방이란 예술가, 장인 등이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방 혹은 작업장. 후에 뜻이 바뀌어 공통 기반 혹은 방침 아래 제작하는 예술가나 직인(職人) 등의 집단을 가리킨다. 아틀리에와 거의 같은 뜻이지만 공방이라는 말에는 ‘물건을 만드는 곳’이라는 뉘앙스가 짙다. 문명이 발생한 곳 특히 예술이 권위 표상의 수단으로써 구실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자는 직속공방을 설치해 놓고 제품의 질을 높이고 디자인을 통일하는 것이 상례였다.



모 꼬 지 공방		<p>모꼬지공방은 핸드메이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편안하게 오셔서 공예도 배우시고 커피 마시며 수다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p> <p>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46길 15</p>
G P M 모 형 공방		<p>프라모델과 캐릭터 피규어 레진 장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모형강의 작업실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자세히 설명하고 노하우 및 킷을 알려드리고 있으며, 등급은 모형입문 강의부터 디테일 업 및 개조에 관련된 고급 강의까지 가능하며, 장르는 건프라와 캐릭터 피규어 레진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며 운영 중입니다.</p> <p>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58-17 B1</p>

2) 관악의 소극장



수준 높은 연극 애호가들에게 새로운 경향의 연극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객석 300석 미만의 소규모극장. 개념적으로 상업연극과 대응한다. 이런 규모의 소극장이 등장하게 된 것은 19세기 말, 상업연극의 스타 중심 흥행에 반발하여 일어난 연극혁신운동이 소극장운동의 물결을 타고부터이다. 유럽에서는 1887년 프랑스의 A.앙투안이 창설한 자유극장이 그 시초이다. 한국에서는 1931년 극예술연구회가 소극장운동을 벌이면서 소극장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본격적인 소극장운동이 일어났다. 서울에 공간사랑·민예극장 등의 소극장이 생겼고, 특히 198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소극장은 정통 연극방식뿐만 아니라 마당극, 현대적인 인형극 등 여러 가지 연극 양식을 도입하였으며, 주제에서도 종래의 금기사항을 과감하게 깨기도 했다. 그러나 소극장의 확대와는 달리, 소극장운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연극인들 때문에 통속화·저질화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p>광태 소극장</p>		<p>신림동 고시촌이라는 다소 문화 불모지에 위치하여 지역민들과 지역학생들에게 문화향유지로 사랑받고 있으며, 프로배우들이 제2의 대학로를 꿈꾸며 만든 신림고시촌 1호 창고소극장. 서울 관악구 호암로 22길 51 위치.</p>
<p>배우는 소극장</p>		<p>대학생들과 직장인 등 일반인들이 뮤지컬과 연극 공연을 하는 곳 서울 관악구 인현2길 20 위치.</p>

2. 관악의 미술관과 박물관

(3-4 김진아, 3-5 방지혁, 3-2 안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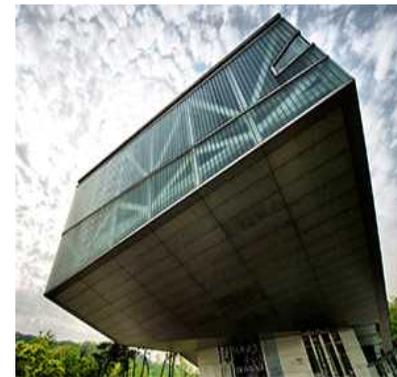
1) 남서울 생활 미술관



대한제국(1897~1910) 주재 벨기에 영사관 건물로서, 한옥 밀집 지역인 회현동에 그 부지를 마련하고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1905년 준공되었으나 이후,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1983년에 지금의 남현동으로 이전·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 전문 위원들의 도움으로 복원되었다. 이후 1970년 상업은행(현 우리은행)이 불하받아 그 소유로 있던 중, 2004년 5월 우리은행이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에 무상임대 하여 서울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살려 공공미술관으로 새롭게 꾸며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 2004년 9월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미술관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남현동 1059-13 서울시립미술관 / 02-598-6247 /평일 10:00 - 20:00 주말 10:00 - 18:00
월요일 휴무 / 입장료 : 무료

2)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교문 옆에 자리 잡아 대학과 지역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U-Glass를 외부마감재로 선택하여 철골 트러스 구조가 노출된 미술관 건물은 언덕의 지형을 이용하면서도 공중에 떠있는 거대한 조각 작품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지상 3층, 지하 3층으로 연면적 1,357평의 미술관 내부는 중앙의 나선형 통로와 측면의 두 곳의 통로를 통해 서로 다른 기능의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유동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각각의 공간사이의 출입문을 두지 않아 전시실과 лек처홀, 오디토리엄, 미디어라운지, 카페 등 내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개방형 문화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세계적인 건축가 램 클라스의 작품이다.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 02-880-9504 /매일 10:00 - 18:00(화~일 18:00시까지 운영) 월요일 휴무 (명절연휴, 개고기기념일(10월15일)휴관)/ 입장료 : 일반 3000원, 청소년&어린이 2000원

학습활동

1. O, X 퀴즈 (3-1 김혜림)

1. 공방은 예술가, 장인 등이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방 혹은 작업장이다. (O , X)
2. 공방이라는 말에는 '물건을 만드는 곳'이라는 뉘앙스가 없다. (O , X)

2. 공방을 차린다면 어떤 공방을 차리고 싶은가? (이유도 함께) (3-1 김혜림)

3. 자신이 하고 싶은 공연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자. (3-1 이하영)



3) 필립강 갤러리



필립강갤러리는 2004년 6월에 <필립강컬렉션>의 이름으로 서울의 신사동 사거리에서 첫문을 열었다. 다음 해인 2005년에 지금의 <필립강갤러리>로 화랑 명칭을 변경하였다.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신사동을 거쳐 청담동으로 이전하였고, 2008년에는 도곡동에 <도곡분관>을 열고 1년간 운영한바 있다. 남부순환로에 별도의 공간을 두고 화랑 부설로 <필립강미술연구소>를 겸하고 있다. 대가·중진 작가 이외에도 탁월한 작가들을 엄선하여 꾸준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고, 역량 있는 유능한 신진작가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외 Art Fair에 적극 참여해 이들 작가들의 대외 소개에도 적극 임하고 있다. 회화·조각·사진·판화·미디어아트 등 장르에 제한을 두지 않고 현대미술 전반을 아우르는 철저한 기획전문 화랑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전시회만을 고집하는 고품격 화랑을 지향하고 있다.

봉천동 179-58 낙성대현대아파트 / 02-517-9014 / 평일&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공휴일 휴무

4) 호림 박물관



위치: 관악구 남부순환로2076
 소장유물 7330여 점(1993.12.31 현재). 1982년 10월 개관. 1981년 호림 윤장섭이 수집한 고미술품 35점을 출연하여 재단법인 정보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이 개관의 계기이다. 이후 1999년 강남구 대치동에서 관악구 신림동으로 옮겨 새로운 모습으로 개관하였다. 현재 소장한 유물은 토기 2700점, 도자기류 2280여 점, 회화류 530점, 전적류 1050점, 금속제품 550여 점, 목제품 80점, 석제품 140점 등이다. 그 밖에 지정유물 내역으로는 국보 8점, 보물 35점 등이다. 특히 청동기시대의 홍도채

문토기를 비롯하여 삼국시대 · 통일신라시대 · 고려시대의 각종 토기, 조선시대의 백자 및 분청사기를 두루 구비하여 국내 최고수준의 토기·백자 소장처로 평평이 나 있다. 그 밖에 고려 현종 때 만든 초조 대장경은 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로 알려져 있다. 현재 세들어 있는 건물은 장소가 좁아 관악구 신림동 소재 8만 9100 m²의 부지에 4,290 m²의 박물관을 신축하여 옮길 예정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호림박물관 (두산백과)



5) 관악구 조원동 아파트의 변신



관악구 조원동에는 1974년에 건립되어 40년간 자기 자리를 지켜온, 지금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파트가 있다. 주소는 '관악구 조원동 1645-2'이다. 하지만 이곳은 바뀌고 있다. 이상용, 함혜경, 박재영, 홍남기, The Biteback Movement 등 5명(팀)이 강남아파트를 꾸미기 시작했다. 높은 습도와 온도 등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멋진 작품들을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이곳은 밤이 되면 여느 폐가나 사람들 입소문으로 자자한 공포 장소로 흔치 않은 공포를 뽐내기도 하지만, 낮에는 미술관 같이 예상 밖으로 편안한 장소로 변한다.

학습활동

1. 미술관 한 곳을 다녀온 뒤, 인상 깊었던 작품에 대해 감상문을 쓰시오. (3-4 김진아)

2. 호림 박물관에서 마음에 드는 유물을 그리고 그 이유를 써 보시오. (3-2 안지원)

--	--



3. 관악의 벽화길

(3-3 이영인, 3-5 유지아)

1) 관악중학교 담벼락 고백길



서울대 입구 8번 출구 쪽에 위치한 고백길은 행운동 주민 센터를 중심으로 총 4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골목이 반듯하지 않고 이어져 있다 보니 초행자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벽화가 있을까 기대하는 기쁨이 쏠쏠하다.



먼저 1코스는 행운동 주민센터 위쪽의 골목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얀 담벼락에 귀여운 아이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다. '행운동고백길'은 자발적인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졌고, 그들의 재능기부로 인해 앞으로 행운동이 벽화골목길로 유명한 동네가 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1코스를 지나 2코스에 있는 우주어린이집 담벼락에 있는 하트만으로도 사랑이 가득해 보이는 그림은 형태도 색채도 단순하지만 심플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고백의 장소가 될 것 같다. 사랑스런 커플들의 잊지 못할 장소로 오래오래 남아 그들의 추억의 장소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창문에 꽃을 그려 화분처럼 만들었다. 평범한 창문이 알록달록 하게 변하니 보기 좋다. 예쁜 화분이 올려진 꽃들로 인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것 같다.



3코스의 시작이다. 여긴 관악중학교 쪽으로 가는 길이다. 일반 고백과는 달리 "어젯밤 저는 당신 몰래 치킨을 시켜먹었습니다" 라는 글귀처럼 재미있는 글들도 있다.

이렇게 고백 말고도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 길도 있다. 일본 만화의 토토로나 코끼리 그림 등의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어 어린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다.



마지막 4코스이다. 여긴 관악중학교의 내려가는 길에 있는 벽화이다.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은 벽화를 보며 올라오니 아침부터 기분이 상쾌할 것 같다. 옛날 공중전화 박스를 그려 놓은 것 같은데 요즘은 대부분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공중전화가 없어진 것 같다.



학습활동

1. 직접 벽화를 디자인 해 보세요. (3-5 유지아)

2. 만든 벽화에 대한 설명을 쓰세요. (3-5 유지아)

3. 관악중학교 담벼락에 그려져 있는 벽화 중 맘에 드는 것 1개를 골라 그려보자.

(3-3 이영인)

소감

■ 3학년 1반 김혜림

수학여행 자료집에 이어서 마을 교과서를 만든다니 정말 놀랍다. 수학여행 자료집을 만들 때와 굉장히 비슷한 거 같다. 그때도 이렇게 문제도 만드는 등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난 나의 16년 내 인생을 관악구에서 보냈다. 관악구의 예술에 대해서 알아 본 것이 처음이다. 사실 관악구에 별 관심 없이 살았는데, 이번 프로젝트로 조금 관악구에 대해서 알아 본 거 같다. 우리 엄마가 만드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엄마를 따라 공방에 많이 갔다. 그래서 벽화길, 소극장, 공방, 미술관, 박물관 중에서 공방을 선택했다. 그래서인지 다른 주제들 보다 친숙하게 느껴진 거 같다. 관악구의 예술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서 관악구를 좀 더 알게 되어서 좋긴 하지만 재미는 없다.

■ 3학년 1반 마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수학여행 자료집을 만들 때가 생각났다. 그때 엄청 힘들게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해서 좋았다. 우리 마을의 교과서를 만들어서 책으로 나온다고 하니깐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했다. 우리 마을을 홍보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 관악의 예술을 찾아보면서 생각보다 관악구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찾으면서 신기했다. 관악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한다. 좋은 곳이기도 하고 볼거리도 많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곳 같다.

■ 3학년 1반 이하영

우리 동네에 16년간 거주 중이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몰랐던 사실들과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주변에 관심이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악구는 참 다양한 기능들을 해내고 있었다. 우리 조의 주제는 '관악의 예술' 이었고 나는 그 중 소극장에 대해 조사했는데 멀게만 느껴졌던 소극장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덕분에 조금 더 예술적인 구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욕구, 소속의 욕구 등을 해소하면 자아실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는데 우리 동네는 그 자아실현 중 예술에 관한 걸 해결하기에 좋을 것 같다는 뜻이다. 또 이 마을 교과서가 완성되면 우리 동네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쉽게 설명하고 즐길 거리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뿌듯하다.

■ 3학년 1반 이태신

이번 과제는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다. 관악구의 미술관, 박물관을 찾기 위해서 우리 마을을 조사하면서 우리 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알게 됐다. 이 과제가 나에 취미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 거 같다. 내가 살면서 마을교과서라는 것을 만들게 될 줄 몰랐다.

■ 3학년 5반 유지아

우리학교는 수행평가가 너무 많은 것 같다. 3학년이라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모둠별로 하다 보니 가끔 시간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조원이 그때그때 달라서 헷갈릴 때도 있다. 이번 수행평가는 우리 관악구에 대해서 마을 교과서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인데 우리 조는 관악구의 예술과 문화를 맡았다. 그 중 나는 우리 서울대입구역 고백 길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고백 길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었고, 생각보다 벽화가 많이 있었다. 나도 고백 길에서 고백을 받아 보고 싶다. 여기서 고백하면 고백을 받아 줄 것만 같다. 이번 수행평가는 조사하고 쓰는 것이 많아서 조금 힘들었다.



V. 관악에서 배우고 꿈꾸기



1. 또 다른 배움, 문화센터

(3-1 김경민)

1) 문화센터

① 한국 문화센터 서울대지부



관악구 중앙동에 위치해 있으며, 김정아 소아 청소년과 윗층에 있다. 평일엔 10시~9시, 토요일은 6시까지 운영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강이다. 예약을 해도 되고, 방문접수를 해도 된다. 주차를 하는 공간도 있다. 연회비는 5만원이다. 패션, 글씨, 아트, 공예 위주의 수업을 한다.

② 풀잎 문화센터 서울대지부



서울대입구역 7번 출구 바로 앞 신유약국 4층에 있는 곳이다. 평일엔 10시부터 9시까지 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다. 1대 1의 개별교육으로 진행하고, 패션, 포장, 공예, 메이크업, 천연비누, 화장품 만들기 등 3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한다.

③ 포도몰 문화센터



신림역 2호선 바로 앞 포도몰 6층에 문화센터가 있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다양한 분야의 체험들이 있다. 타로, 사찰요리, 인형만들기, 플라워 디자인 등 다른 문화센터들보다 더 다양하고 즐기기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다.



2) 대표적인 체험활동

홈패션		지갑, 앞치마, 티슈케이스, 에코백 등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유용하게 쓰이는 물건들을 직접 천이나 여러 원단 등으로 만드는 활동이다.
프랑스 자수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발달한 자수이다. 흰 형겉에 여러 색의 실로 자수해 겉으로는 레이스처럼 보인다. 자수법은 약 300가지로, 포타기주 스템, 휘프트 플라이 스티치 등이 있다.
리본아트		철로 된 핀대나 머리띠에 양면테이프를 붙이거나 접착제를 발라 원단을 부착시키는 것이다. 원단 말고도 보석이나 구슬을 붙여도 된다.
화장품 만들기		여러 재료를 저울로 계량해 넣어 스킨, 향수, 비누 등을 만들어 낸다. 주로 많이 만드는 비누의 재료들로는 비누베이스, 색소, 비누용 칼, 담을 용기와 가열도구가 필요하다.
가죽공예		가죽 소품을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 수 있다. 미리 염색된 가죽을 사용해 기존의 가죽 공예보다 시간이 적게 든다. 지갑이나 기타 케이스, 팔찌 등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



2. 관악의 도서관

(3-4 이승욱, 3-5 임다비)

1) 관악구 도서관

관악 도서관 (공립)		공연장과 전시장, 교양강좌 공간, 도서관이 한데 모여 있는 복합문화 시설이다.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조성하여 2002년 10월 11일 개관하였다. 중앙 플라자를 사이에 두고 문화관 건물과 도서관 건물로 나누어져 있다.
낙성대 공원 도서관 (공립)		낙성대 공원 도서관은 2011년 6월 13일 개관을 하였다. 낙성대 공원 도서관은 낙성대 공원 안에 위치를 하며 컨테이너로 만든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낙성대 공원 매점 앞에 위치를 하고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
글빛 정보 도서관 (시립)		글빛 정보 도서관은 2006년 2월 27일 개관을 하였다. 관악구 청림동 주거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도서관 주요 사업으로 문화, 교육, 경제, 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강좌 프로그램과 어린이를 위한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상영한다.
은천동 작은 도서관 (시립)		서울시 관악구 은천동 작은 도서관은 2009년 12월 16일 개관하였다. 도서관 주요 사업으로는 시청각 교육을 비롯해 미술놀이, 시낭독회, 독서교실, 전래 유아법 강좌, 동화 구연, 영화 상영, 공예교실, 문화강좌, 전시회, 독서퀴즈, 금융교육, 도서관 어린이 기자단, 한자교실, 특별강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관악산 詩 도서관 (구립)		관악산 詩 도서관은 2011년 5월 25일 개관을 하였다. 도서관에서는 향가, 가사, 시집 등 고시를 비롯하여 동시, 한시를 볼 수가 있고 하이쿠와 같은 일본 시집도 볼 수가 있다.
책이랑 놀이랑 도서관 (국립)		서울시 관악구 책이랑 놀이랑 도서관은 2010년 12월 27일 개관하였다. 도서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체험을 통한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 향토 전통문화 발굴과 보전 등이 있다.

2) 관악구 도서관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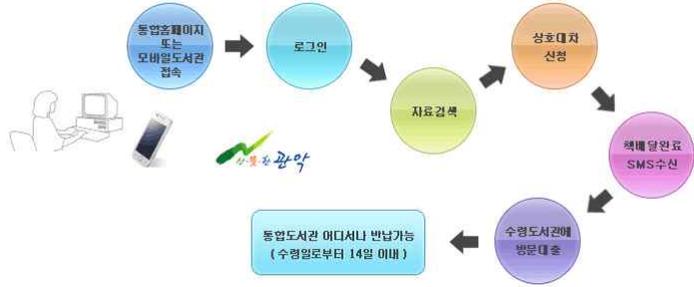
● 스마트 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은 신림역에 설치된 무인자동화기기로 적재되어 있는 도서 중 원하는 책을 선택하여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은 회원이 즉시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신개념의 관악구통합도서관서비스이다. 이용 가능 권수는 2권이고 다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연장 없이 대출기간이 7일로 한정된다. 05시부터 익일 1시까지 운영된다.



● 책나래(상호대차)

책나래는 관악구통합 도서관 상호간에 대출/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호대차서비스이다. 이용하는 도서관에 회원이 원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관악구내 다른 도서관에 비치중인 대출가능 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배송은 통합도서관에 참여중인 도서관 도서 대출회원 참여도서관이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5권을 신청 할 수 있다. 홈페이지, 모바일 도서관, 도서관 방문 및 전화로 취소가 가능하다.



● U-도서관



U-도서관은 도서관에 비치된 책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하철역 무인대출기로 받아보도록 신청, 보다 편리하게 도서를 받아볼 수 있는 관악구통합도서관 서비스이다. 신대방역, 신림역, 봉천역, 서울대입구역, 낙성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관악 통합 도서관 회원증의 모습이다. 관악 통합 도서관 회원증은 서울 시민이거나 관악구 재직자 및 재학자 라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먼저 관악통합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가까운 도서관이나 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신분증이나 학생증을 들고 가야 한다. 도서관에 따라 1~2일이 걸리기도 하고 즉시 발급이 되기도 한다.

학습활동

1. 관악구 도서관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적어 봅시다. (3-4 이승욱)



3. 싱글벙글 교육센터

(3-3 서남경, 3-2 김주ыл)

1) 싱글벙글 교육센터란



싱글벙글 교육센터는 구립봉천청소년독서실(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73)을 증축(층수를 높이는 것)·리모델링하여 새롭게 변신한 복합교육문화시설입니다. 열람실, 청소년미디어실,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교육문화 공간으로 청소년 중심의 심신 단련과 잠재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시사경제

신문 / 관악구 '싱글벙글 교육센터' 시범운영 (기사)

2) 교육 프로그램

	<p>□ 컴퓨터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인터넷 활용하기 - 스마트폰 활용하기 - MS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배우기
	<p>□ 취미·여가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죽공예 배우기 - 천연비누 & 화장품 만들기 - 꽃꽂이, 생활원에 배우기 - 통기타·우쿨렐레·플루트·오카리나 배우기
	<p>□ 외국어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억의 팝송 함께 불러요' - 해외여행 영어 - 중국어 생활회화 - 일본어 생활회화
	<p>□ 스피치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피치 - 발표력 쑥쑥 자신감 쑥쑥 초등 스피치
	<p>□ 어린이 방과후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 교실 - 역사 교실 - 독서논술 교실 - 비보이 댄스 교실



3) 열람실 안내

★ ‘싱글벙글 교육센터’의 열람실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밝고 개방되어 있어요.



- ① 위치 : 싱글벙글 교육센터 벙글동 1층~5층 (가장 빠른 길 : 낙성대동 버스정류장 하차 후 센터폴과 영보당 사이 길에서 민음약국 방향으로 직진 400m/약 10분)
- ② 개방시간 : 평일(월~금) - 09:00 ~ 22:00 / 주말(토~일) - 09:00 ~ 18:00
- ③ 휴관일 : 법정공휴일(설, 추석연휴 포함)
- ④ 이용요금 : 무료
- ⑤ 이용방법 : 1층 좌석표발권기에서 원하는 층수와 자리를 선택한 후 표를 뽑고, 출입게이트 지나기
- ⑥ 이용시간 : 7시간, 연장할 때에는 이용 종료 30분전 좌석표를 가지고, 1층 좌석표발권기에서 바코드를 찍고 ‘연장하기’ 누르기
- ⑦ 좌석규모 : 2개 실 130여석 (개방형 열람실)

학습활동

1. 센터의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싶은 것과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 (3-3 서남경)

2. 센터를 이용해 보고 그 소감을 적어봅시다. (3-2 김주일)



4. 그 밖의 배움터

(3-2 김주일, 신비, 3-5 이승호)

1)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은 학생의 과학 교육과 과학교사의 연수는 물론이고 수도권 및 서울의 학생, 시민들에게 과학 공원으로서는 문화 공간 역할을 하기 위해 2004년 7월에 개관하였다. 모든 학생과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서울사랑

2) 미당 서정주의 집



미당 서정주 시인이 1970년 마포구 공덕동에서 이사와 2000년 12월 24일 타계 시까지 30년간 살던 집이다. 미당이 직접 붙인 집의 이름은 ‘봉산산방’으로, 이는 곰이 쪽과 마늘을 먹고 웅녀가 됐다라는 단군신화에서 따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미당의 창작산실인 이곳은 시인 생애의 마지막 집필 공간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미지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서울사랑

3) 관악구청소년 복지센터

이 청소년복지관은 힘들고 지친 청소년들에게 행복에너지를 충전하는 센터이다. 이 복지관에선 심리상담을 주로 받을 수 있는데, 관악구에 거주 또는 관악구 안에 있는 학교를 재학 중인 만 9~만 24세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 시기 때 극심한 우울, 불안, 압박, 학교폭력, 가출, 진로문 제 등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개인상담, 가족상담, 놀이치료, 심리검사, 전화/사이버 상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사이버 상담외의 상담은 다른 상담소보다 짝 가격으로 부담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위치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길 35 김삼준 문화복지기념관 1층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면 보다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4)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의 행복을 지원하는 복지관으로, 상담, 영역별 치료, 직업훈련, 역량강화, 권익옹호, 가족지원 등 생애주기별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개발, 연계하여 장애인들의 잠재능력 향상과 자기주도적 삶을 지원하며,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개선, 사회참여, 사회통합환경을 조성한다.



5) 보라매 안전 체험관



이곳은 보라매 안전 체험관이다. 위치는 보라매공원에 있고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하고 월요일 휴무 설 및 추석명절 당일에는 휴관이라고 한다. 이 보라매 안전 체험관은 박물관과는 조금 다르다. 관람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전 예약해야 갈 수 있다. 이곳에서는 재난 체험, 전문 체험, 자유관람 세 가지가 있다. 전문체험은 지진 태풍 교통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 대처법을 실제로 체험해 본다. 전문체험은 심폐소생술과 소방시설 이론을 배운다. 자유 관람은 체험관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들을 관람할 수 있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 아래의 표를 참고하자.

이곳은 실제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이 설명해주기 때문에 정말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체험구분	체험시간(소요시간)	체험인원
재난체험	지진, 태풍, 화재, 교통사고, 4D영상관	평일 주말 : 10시, 13시, 15시(약 100분)	평일 : 각 회당 90명 주말 : 각 회당 40명 (단, 토요일 10시 70명)
전문체험	심폐소생술	평일 : 10시, 13시, 15시 (약60분) 주말 : 10시(약60분)	평일 · 주말 : 각 35명
	소방시설(전문)	평일 : 11시, 14시, 16시 (약60분) 주말 : 11시(약60분)	평일 · 주말 : 각 35명
자유관람	· 어린이안전관람장 · 소방역사박물관	10시~17시(입장 : 종료 30분전까지) 입장가능	보호자를 동반한 미취학아동

이곳은 실제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이 설명해주기 때문에 정말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재난 체험		여기는 재난 체험 중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 해야되는지 알려주고 있다. 여기서는 비상상황을 현실처럼 잘 표현 해낸 것 같다. 지하철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소방관이 아주 섬세하게 알려주고 직접 체험한다. 실제로 지하철에서 불이 나면 모두가 알고 있듯이 앞쪽의 전화기로 몇 번째 칸에 불이 났다고 지하철 레버를 당기게 되면 문이 열리고 가까운 역으로 빨리 대피해야한다.
전문 체험		여기서는 심폐소생술과 소방시설을 체험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 번 실습하고 배운 교육이어서 익숙할 것이다. 그리고 소방시설은 어린이 체험용인데 실제 소화기를 들고 화면에 들고 쏘면 화면에 나와 있는 불이 꺼지는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할수 있고 불이 났을 때를 가정하여 실제로 대처하는 교육도 실시한다.

소감

■ 3학년 1반 정지은

맨 처음 “마을 교과서 만들기” 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우리가 마을교과서를?”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모듈별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서 한 부분씩 맡아서 조사를 시작하면서 점점 흥미가 생기고 점점 재미있었다. 중간 중간 애매하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이러한 프로젝트 덕분에 우리가 우리 동네, 우리 관악구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던 보람찬 시간 이었다. 다음에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면 더욱 보람 찰 것 같다.

■ 3학년 1반 장대한

이번 프로젝트는 참신한 프로젝트였던 것 같다. 매일 지겹도록 하는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새롭고 흥미로운 프로젝트였다. 마을주민들이 그것도 학생들이 직접 마을에 관한 교과서를 만들어 마을의 모습을 널리 알리고 홍보한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내 손으로 직접 우리 마을을 소개한다는 것이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직접 만든 교과서를 보고 우리 마을에 대해 더욱 잘 알고 더 호감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맡아 조사한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 다른 점들을 조사하다보니 별볼 것 없을 것 같은 우리 마을이 생각보다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다고 느꼈다. 좋은 경험이었다.

■ 3학년 1반 김경민

원래 월요일이 마감일인줄 알고 여유롭게 만들고 있었는데, 월요일 아침 전까지 내리는 선생님의 말씀에 이번 프로젝트도 다급하게 마무리지었다. 매우 졸리지만 이번 프로젝트도 무사히 마무리 지은 것 같아서 뿌듯하다. 얼른 자고 컨디션을 회복해서 남은 시 발표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애들이 빨리빨리 파일을 보내줘서 그나마 빨리 정리하고 수정하고 했던 것 같다. 하루빨리 모든 프로젝트를 다 끝내고 싶다. 1학년 때 부터 지금까지 한 프로젝트가 8GB를 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 놀라웠다. 내가 한 프로젝트 자료들을 다 후배들한테 넘기고 싶다. 한마디로 보고 참고하라는 뜻에서 주고 싶다는 뜻이다. 어쨌거나 이 바쁜 상황 속에서도 또 한 번의 프로젝트를 넘긴 나를 칭찬해야겠다.

■ 3학년 2반 안지원

이번 프로젝트는 ‘마을교과서’ 내가 사는 곳을 조사해서 알려주는 책을 만드는 것이었다. 나의 주제는 관악구의 불거리였다. 처음에는 쉬울 줄만 알았던 주제가 생각을 해보니 다른 애들과는 겹치면 애매해진다 는 점이였다. 그래서 관악구에 사는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주제를 생각을 해보았다. 그랬더니 내가 어렸을 적에 살던 동네에 있는 서울시립 미술관이 생각났다. 서울 시립 미술관은 1달마다 전시가 바뀌니 관악구에 사는 시민이나 다른 구에 사는 시민이 와도 전혀 손색을 없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한 나는 일단 시립 미술관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른 것을 또 생각해보고 검색을 해보았더니 천주교 삼성산 성지라는 곳이 나왔다. 하지만 길게 소개도 안하고 문제를 내지 않은 이유는 종교문제로 갈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를 내지 못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관악구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던 것을 알 수 있게 된 좋은 프로젝트였던 거 같지만, 시간이 너무 적어서 완성도는 낮은 거 같다는 느낌이 든다. 완성을 하여서 기분이 좋은 프로젝트였다.



■ 3학년 2반 9번 이태우

이번 프로젝트는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 끝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힘들게 하긴 했지만 다 해서 기분은 좋다. 시간이 없어서 뭔가 대충 한 것 같지만, 그래도 다 해서 뿌듯한 느낌이 든다. 마을 교과서는 처음 들어봐서 뭘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해가 된다. 한마디로 그냥 마을에 대해서 교과서 같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어쨌든 중학교 생활이 다 끝난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흥분한 것 같다. 이 프로젝트도 무사히 끝내서 다행이다~

■ 3학년 2반 2번 김주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교육체험센터를 알아보게 되어 기뻐다. 나도 나중에라도 시간이 된다면 방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무료이고 경험으로서 정말 이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 가기도 전에 가슴이 떨 정도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준 조원들과 선생님께 감사하고, 다음에도 있을 다른 프로젝트에 오늘도 기대된다. ^^

■ 3학년 2반 27번 신 비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는 힘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곳을 소개하면 좋겠다고 맨 처음에 떠올랐다. 자신이 힘든데 어딜 가야할지 몰라 헤맨 적이 여러 번 있던 나이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 본 것 같다. 청소년, 어린이외에도 장애인 복지센터 등 다양한 센터가 있는 걸 처음 알았다. 그래서 인지 더욱 흥미가 생긴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 3학년 3반 최우형

국어 선생님께서 이런 수행을 많이 내주신다. 이번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 관악구에 도서관이 이렇게나 많을 줄 몰랐고 개방시간, 이용시간 등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이걸 또 하면서 역시 국어에는 수행평가가 쉬운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부하고 싶을 때나 책을 읽고 싶을 때 예는 이도서관에 가서해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수행평가가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 3학년 3반 11번 최원재

국어 선생님께서 이런 수행을 많이 내주신다. 수학여행 프로젝트 때도 느꼈지만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수행 평가만 내주시는 거 같다. 이번에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관악구에 대해 다시 한 번 알게 되어 나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특히 평소엔 많이 안 가던 도서관을 조사하게 되어 알고 있던 도서관은 더 자세히 그리고 몰랐던 도서관을 알게 된 점이 좋았다. 아쉬웠던 점은 참여를 제대로 못한 것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애들한테 피해를 준 게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애들한테 피해주지 않도록 하고 모둠 활동을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겠다.

■ 3학년 3반 25번 서남경

이번에는 우리 마을의 교과서를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젝트를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나마 1인당 분량이 그리 많지 않아서 괜찮은 프로젝트였고, 주제도 '우리 마을에서 배우고 꿈꾸기' 이어서 나도 마을 교



과서를 만드는 도중에 평소에 잘 모르고 있었던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나 미술관, 박물관은 얼마나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위치와 이용시간, 개방시간 등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도 언젠가 공부를 할 공간이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등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때에 우리 반의 마을 교과서를 둘러볼 것 같다. 이번 프로젝트로 우리 마을을 더 잘 알게 되었다.

■ 3학년 3반 29번 이윤주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마을 좀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사실 행동은 잘 알고 있지만 관악구 안에서 알고 있는 건 진짜 별로 없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관악구 인구나 인물들 그리고 미술관 박물관들 또한 알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수학여행 때 한 프로젝트처럼 이 마을 교과서를 만드는데 내가 힘이 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뿌듯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팀원들과 반 친구들과 좀 더 협력하여 마을 교과서가 완벽하게 나오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고등학교를 가서 이런 프로젝트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좀 아쉽다.

■ 3학년 4반 김진아

처음에 이 마을 교과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막막했었다.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주제를 해서 흥미롭긴 했다. 우리 모둠 주제는 '우리 마을 문화생활' 이다.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다. 다른 모둠이랑 살짝 겹칠 수 있는 주제여서 맞추기가 조금 힘들었다. 마을 교과서 만들기만큼 내가 살고 있는 관악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었다. 편집할 시간도 부족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프로젝트이다. 또한, 총 편집을 내가 했는데 모듬원 친구들이 양식에 맞춰서 보내주지 않아서 힘들었다. 나중에 우리 반이 만든 마을 교과서가 실제로 책으로도 나온다고 한다. 정말 기대가 된다.

■ 3학년 4반 이승욱

이번 프로젝트는 관악구를 모르는 사람을 대리고 관악구에 대하여 이 책을 보면 한 번에 알 수 있게 만들라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거 같다 왜냐하면 나도 아직 우리 마을을 잘 모르는데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이거를 보고 아! 이런 곳에는 이게 있구나 할 정도로 만들라는 명령에 힘이 들었던 거 같고 내가 선택한 주제인 도서관은 많이 힘들었던 거 같다. 왜냐하면 일단은 도서관이라는 게 종류도 구립, 시립, 사립, 공립 이런 거처럼 많은 종류의 도서관이 있는데 이거를 만들라니 갑자기 생각도 없어지고 많이 힘이 들었고 하지만 힘든 만큼 보람도 있었고 재미도 있고 이것을 만들면서 이 도서관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알 수가 있고 설명은 적기가 힘이 들었지만 힘이든 만큼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던 마을 교과서 만들기 프로젝트였던 거 같아서 좋았다.



VI. 관악에서 생활하기



1. 관악의 축제

(3-1 최승일, 3-2 최민서, 3-5 임지은)

1) 강감찬축제



강감찬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향과 출생설화를 바탕으로 한 종합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또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강감찬 장군 출병식과 전승행렬, 귀주대첩 재현 행사 등을 시작으로 구민상 시상, 주민화합한마당 과 청년 강감찬 콘서트 등이 열린다. 시민들은 글짓기 대회인 '강감찬 과장'과 보물찾기 형식 '고려국보를 찾아서'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고려사 골든벨'과 고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고려촌 테마부스'가 마련됐다. 강감찬 장군 출병식과 전승행렬은 주민 등 1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관악구청 앞에서 관악로12길을 지나

낙성대공원까지 1.3km 구간에서 펼쳐진다. 전승행렬에는 수도방위사령부 군악대와 사이드카, 서울여성취타대, 민간공연단,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다. 출처:http://blog.naver.com/gwanak_gu/221120578079

2) 관악산 철쭉제



관악산 철쭉제는 "올림픽 맛이 관악구민화합 대축제" 라는 이름으로 1988년 6월 18일 관악산 제 1광장에서 처음 열렸다. 관악산 철쭉제라는 명칭은 제 2회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매년 철쭉꽃이 한창인 4~5월에 열리는 구민 대축제로 관악구 발전과 안성을 기원하고 화합과 애乡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특히 2012년 제 21회 관악산 철쭉제는 도립천문화한마당과 연계하여 기존의 관 주도행사에서 탈피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운영하여 주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민 주도형 축제로 개최되며, 이후 매년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명품 향토문화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주요 행사내용은 기획공연, 관악산제, 구민노래자랑,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 구민백일장, 구민등산대회, 사진전시회, 각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등이 있다.

3) 낙성대 인헌제



고려시대의 명장 강감찬의 호국정신과 위업을 기리고 구민화합과 향토애 고취를 위한 민속제이다.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고려명장 강감찬 장군이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 큰 별이 한 집으로 떨어졌다는 장군의 탄생 설화에서 낙성대란 이름이 유래, '인헌'은 장군의 시호를 따온 이름이다. 강감찬의 생가 터인 낙성대(서울유형문화재)에서 구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된다. 구는 역사와 전통이 깃든 인헌제를 주민이 직접 만드는 과정중심의 참여형 전통문화축제로 운영하기 위해 참여공연과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무대공연을 비롯한 단위 프로그램, 체험, 전시, 홍보 참여부스 등이다. 주요행사로는 인헌제, 구민백일장, 구민회화대회, 국악경연대회 등이 있다. 매년 10월경에 관악문화원 주관으로 개최되며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소중한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4) 관악 책잔치



독서의 계절이라는 가을에 책과 사람이 한데 어우러진 책 잔치가 펼쳐진다. 눈으로 보기만 하는 축제가 아니라 책을 매개로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주민 참여 축제로 평생학습축제와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책과 흥겹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책 속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평생학습축제



민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참여형 축제인 이 축제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 존재하기 위한 학습이념 등 인간이 누려야 할 6가지 유네스코 학습권리를 실천하고자 관악책잔치와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축제기간 동안에는 관악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릴레이 형태로 다양한 전시 및 강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6) 열린음악회



관악의 대표적 문화 브랜드인 ‘열린음악회’는 관악구민들의 일상에 예술과 감동의 문화공연을 선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관악구의 문화 프로그램이다. 2008년에 시작된 후 해가 더해질수록 다양하고 품격높은 공연을 제공하고 있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악구 공연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7) 관악거리예술공연



2014년과 2015년에 구청 앞 광장에서 매주 목요일에 진행하던 거리공연을 요일과 장소를 특화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실력 있는 예술인들에게는 예술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콘텐츠의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연을 본 지역주민은 다음 공연은 언제 있는지 문의할 정도로 큰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2. 관악의 지역기관 및 의료시설

(3-4 윤서영, 오진욱)

1) 관악구청



1973년 7월 1일에 개청하였다. 중앙 정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와 관악구 고유의 행정 및 민원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동 행정 지도와 관리, 도시 계획, 조례와 규칙의 제정, 구 예산의 편성과 집행, 각종 세금 부과와 징수, 국가 재산의 관리, 호적과 주민등록 관리, 복지 사업과 위생 사업, 환경 보호와 개선, 산업 진흥, 지역 개발, 재난 안전 관리 등이다. 이와 함께 국·공유재산 매각, 공공 근로사업자 관리, 재활용 업무 계획, 사회 복지 시설 관리 업무도 수행한다. 조직은 구청장과 부구청장 아래 5국(행정재정국, 지식문화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30과, 1직속기관(보건소), 21개 동주민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악구 면적은 29.57km²(서울특별시 전체의 4.9%)이고, 인구는 53만 1,539명(서울특별시 전체 인구의 5.2%), 세대수는 24만 8,362가구다.

2) 관악세무서



국세청 산하의 지방국세청에 소속되어 관할 구역의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세무 행정기관이다. 납세자보호실, 개인납세1과, 개인납세2과, 재산법인납세과 재산팀, 재산법인납세과 법인팀, 조사과, 운영지원과 업무 지원팀, 운영지원과 징세팀, 민원 봉사실 총 9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3) 관악문화원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 하고 구민의 정서함양으로 보다 윤택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을 계승, 전개시키고 신문화 창조로 선진문화건설에 앞장서고자 한다. 구민문화대축제, 낙성대 인현제, 강감찬장군 추모제를 개최하며 문화학교에서 역사교육이나 예절교육, 무용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각종 전시회와 연주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4) 강남 고려병원



강남 고려병원은 1975년에 개원하여 인명존중, 정직, 성실이란 슬로건 아래 지역 의료 발전과 국내 의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병원의 위치는 봉천동 36-83 이고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가 진료 과목이다. 진료시간은 평일 6:30~17:30, 토요일 8:30~12:30이다.(응급실 24시간)

5) 사랑의 병원



사랑의 병원은 사랑실천의 감동으로 다가서는 병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30여년 이상 노력을 해 왔다. 병원의 위치는 봉천동1664-1이고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가 진료과목이다. 진료 시간은 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까지 하고 응급실은 24시간 진료한다.

6) 관악구 보건소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중심적 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구민의 위생관리와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건강검진 등 언제나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있다. 진료대상은 만15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며 고혈압, 당뇨, 상기도 염증, 고지혈증을 진료, 상담해준다.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가지고 와야 하며 평일 9:00~18:00까지 진료한다. 진료절차는 1.내과방문번호표 수취 2.접수 3.의사진료 및 상담 4.처방전 발급 및 수납이다.

학습활동

1. 응급실이나 종합병원을 들러서 진료를 받았던 적이 있다면 그때 진료를 받은 소감, 병원에 대한 소감을 적어봅시다. (3-4 오진욱)



3. 관악의 경찰서와 안전

(3-3 최준영, 3-4 남채운, 3-6 고명우)

1) 관악경찰서



서울관악경찰서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 관할하는 경찰서이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5길 33 (봉천동)에 위치하고 있다. 관악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들이다. 각종 행사와 일이 있으면 교통을 통제해 주고 저녁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당곡지구대, 낙성대지구대, 신림지구대, 관악산지구대, 봉천지구대, 난우파출소, 미성파출소, 신사파출소, 남현파출소 등이 있다. 1976년 12월 20일에 생겼으며, 많은 버스가 운행하고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관악경찰서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관악구청이 위치하고 있다. 경무과,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수사과, 형사과, 경비교통과, 정보과, 보안과 등이 있으며, 아침마다 경비교통과의 교통안전계 경찰분들이 관악구청

과 서울대입구역 사거리에서 교통을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성안전귀갓길 시스템이 있어서 누구나 신청만 하면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다. 교통안전교육과 어린이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학교마다 지경경찰관을 배치해 교육을 하고, 그 학교에서 사건 발생시 그 경찰관이 관리를 한다.

2) 관악구 안전지도



관악구에 있는 여러 안전센터들을 모두 이어서 코스를 만들었다. 코스대로 가면 여러 안전체험을 할 수 있으니 도보로는 좀 오래 걸리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나씩 가서 체험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3) 인현초 주변의 횡단보도 지도



A : 인현초 후문 앞 횡단보도다. 횡단보도는 아니지만 등, 하교 시간에 녹색어머니와 경찰관분들이 수고하신다. 그 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유의해야한다.

B : 인현초 정문 옆쪽 횡단보도다. 이곳은 지도 상에는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있고, 실제도 되어있지만 신호등이 없어서 위험한 곳이다. 도로가 넓은데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난간을 설치했지만, 신호등이 없어 위험한 건 여전하다.

C : 여기는 낙성대입구 교차로에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오면 보이는 큰 도로다. 이곳도 B와 마찬가지로 지도상에는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양 옆에 차가 주차되어 있고, 기사식당 주변이라 택시도 많이 다녀서 위험하다.

D : 변화가 주변에 있는 남부순환로를 가르는 아주 큰 횡단보도이다. 그래서 그런지 2개로 나누어져 있다. 큰 횡단보도라 위험성은 그나마 낮지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맞다. 신호가 길어 오래 기다려야 한다.

E : 작은 길 하나를 두고 양쪽에 신호등이 있는데, 동시에 켜진다. 이 신호등은 주유소와 유명 빵집 '장블랑제리' 앞에 위치하여 줄 서있는 사람은 물론 주유소 앞차도 굉장히 많은 곳이다. 게다가 신호가 짧아서 뛰어서 무리하게 건너려는 사람이 많은 곳이다. 장 블랑제리 앞에는 관악02번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여 있어 잘못하면 크게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이라 많은 유의가 필요하다.

4) 관악중 주변의 횡단보도 지도



F : 이곳이 굉장히 위험한 점은, 첫 번째로 남부순환로를 가르는 큰 횡단보도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버스가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앞을 안 보고 서있다가는 버스와 부딪힐 위험이 매우 높다. 많은 유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G : 기사식당앞이라 택시가 많이 오가는데 제대로 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건널 때 주의해서 건널야 한다.

H : 관악중학교로 올라가는 부근에 있는 사거리다. 여기 사거리는 차가 의외로 많이 이동하는 곳이나 차가 양 옆에 주차되어 있어 걸어다니는 사람은 이동하는 차를 잘 못 발견하기 쉽상이다. 신호등이라도 하나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학교 부근이라서 사고가 많이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습활동

1. 자신이 여러 가지 안전체험을 해본장소의 위치와 어떤 안전체험을 하였는지 써보세요. (3-6 고명우)

2. 본인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횡단보도의 기호를 적어주세요. (2개) (3-4 남채윤)

3. 횡단보도에 얽힌 자신의 추억을 적어주세요. (3-4 남채윤)

3. 관악구청에 민원을 넣는다고 가정하고 민원 글을 작성해 주세요. (3-4 남채윤)



4. 관악의 쇼핑물

(3-3 강은희, 3-4 김지성)

1) 포도물



포도물은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 위치해 있다. 신림은 지하철 하루 이용객 규모가 4번째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닌다. 규모는 2009년 2월 오픈하여 포도물은 대지 약 900평, 연면적 약 12,000평으로 지하 8층, 지상 15층 규모의 대형 쇼핑물이다. 복합쇼핑물로 여러 가지 음식점, 쇼핑, 영화관을 즐길 수 있다.

2) 라복 아울렛/에그옐로우



위치는 서울대입구역에 위치해있다, 지하 1,2층이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닌다. 건물은 15층까지 있지만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쇼핑물 그 위로부터는 다양한 상가가 있다. 10에는 영화관이 있고 11~ 12층까지는 상영관이 있다. 총상영관은 5관이 있다. 현재 9층으로는 음식점, 8층으론 푸드코트가 자리잡고 있다.

3) 르네상스 쇼핑물



위치는 신림역 7번 출구에 위치해 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쇼핑 매장이 있고 그 위로부터는 병원, 학원 등 여러 가지 상가들이 있고 또 그 위로는 헬스장이 있다.

4) 관악 롯데백화점



보라매공원 바로 옆에 세워진 이 롯데백화점 서울점은 없는 물건들이 없을 정도로 이곳 세계에서는 유명한 백화점이다. 사진으로 보기에는 작아보이지만 저 뒷편까지 꼭 이어져 있어서 생각보다 크다. 그리고 세 일도 많이 해서 항상 사람들로 붐빈다. 이곳을 차타고 올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와야할 것이다.



5. 관악의 시장

(3-3 박상호, 3-4 김혜영, 류재령)

1) 인현시장



서울시 관악구 인현동 1638-22이고 낙성대역 뒤편에 위치한 조그만 동네 골목시장이자 전통시장이다. 시장에는 빠질수 없는 떡볶이와 따뜻한 어묵국물과 같은 분식과 채소와 과일, 고기같은 여러 가지 요리 재료들을 다른 곳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골목시장은 주머니가 가벼운 사람에게도 배부름을 가득 안겨주는 보물 같은 곳이다. 2017년 9월 13일 관악중학교에서 전통시장에 가서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시장 사진을 찍어 UCC를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는 '전통시장 살리기'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했다.

2) 신원시장



도림천 주변에서 노점을 하던 상인들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해 오늘날 121개 점포에 이르는 전통시장으로 발전해 왔다. 주택가 사이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신림역과 도림천이 있어 하루 유동인구가 평균 1만 명에 달하는 대형 상권이다. 대형마트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시설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비가 와도 우산 없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3) 신사시장



신사시장은 전체점포의 80-90퍼센트가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 농산물 급증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되는 과정에서 신사시장은 발빠른 행보로 서울시 원산지 표시제 우수 시장으로 선정되었다. 상인회는 원산지 표시제 이후 시장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높아져 단골고객이 늘었다고 밝혔다.



4) 우림시장



서울시 관악구 난곡동에 있는 재래시장으로 주변 거주 지역의 주민들의 수요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기존의 재래시장과는 다르게 현대화된 시장으로 건물 안에 시장이 들어와 있어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이며, 날씨와 관계 없이 쇼핑할 수 있다.

5) 봉천중앙시장



봉천중앙시장은 관악구 내의 오래된 전통시장 중 하나로 60년대 말 시장의 필요성으로 계획적으로 형성된 시장으로 채소, 생선, 정육, 생필품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상점들이 입주하여 활기를 띠었으나 시설 낙후와 주변 현대화된 시장에 의해 규모가 축소되어 현재는 중형 마트와 순댓국이나 순대볶음, 머리고기, 족발 등의 전통음식들을 파는 식당들이 대부분이다.

학습활동

1. 돌아다녔던 시장들 중에서 가게 하나를 골라 가게를 그리고 그 가게에 대하여 써라. (3-4 류재령)

2. 전통시장의 특징을 써 보자. (3-4 김혜영)



6. 관악의 맛집

(3-3 양경식, 3-4 장나영)

1) 샤로수길

관악구에 있는 유일한 대학교는 서울대학교이다. 학교 정장의 글씨(샤)를 따서 만든 길이다. 샤로수길은 서울대학교의 '샤'와 '가로수길'을 합한 용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샤로수길'은 관악구에만 존재하는 '관악만의 길'에 적합하다.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로부터 이어지는 관악로 14길, 젊은 장사꾼들의 특색 있는 가게들이 죽 늘어선 이곳을 사람들은 '샤로수길'이라고 부른다.



샤로수 길

- 입구 - ① 샤로수길 슈퍼쿠키, 더멜팅팟 - ② 짹짹한 맛 생각나는 맛, 프랑스 융합집
- ③ 고수가 내린 핸드 드립 커피, 카페산다 - ④ 독특한 스타일리시 비어, 낭만싸롱
- ⑤ 당신의 채식을 응원합니다, 스위트블런스 - ⑥ 푸짐한 연어 스테이크가 생각날 땀, 연미랑
- ⑦ 오리엔탈 요리와 예술의 만남, 봉천예술관 - ⑧ 참숯 향 짙게 바르고, 샤
- ⑨ 와인의 대중화를 꿈꾼다, 와인창고 잡 - ⑩ 캐주얼 펍에서 먹는 서양 가정식, 루트66
- ⑪ 이것이 진짜 돔베고기 국수, 제주상회 - ⑫ 가볍게 먹는 스페인 요리, 모즈 타파스 라운지 - 끝

+플러스

- 요즘은 샤로수 길이 연인들에게는 좋은 먹거리와 사랑길로도 불리고 있어요~
- 음식들이 가성비와 분위기가 좋고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향이 합쳐진 맛집 데이트로 유행!
- 샤로수길로 생긴 후 많은 블로거들이 왔다 갔기 때문에 골목 상권이 급상승.



2) 라젤라토레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4 / 서울시 관악구 관악구청 맞은편에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평일과 토요일에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일요일에는 오전 11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운영한다. 그리고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는 브레이크타임이라 운영을 안 하니 이 점은 주의할 것 같다. 식사하기 전 애피타이저로는 빵과 샐러드가 나오고 대표 메뉴로는 새우 계살 로제파스타와 베이컨 토마토 피자가 있다. 가게 특유의 깔끔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식사 분위기를 한층 더 높여준다. 방송 '맛있을 지도 시즌2'에 출연한 적이 있다.

새우 계살 로제 파스타		새우와 대게살로 맛을 낸 로제소스 파스타로 가격은 14000원이다. 독특한 면발과 소스가 아주 매력적이고 계살과 새우가 씹히는 맛이 참 좋다고 한다. 파스타 속에 쫄쫄한 빵이 같이 나온다.
베이컨 토마토 피자		신선한 토마토와 베이컨 토핑의 피자로 가격은 12000원이다. 크기가 정말 크고 한 조각마다 토마토가 들어있어 अच्छ고 맛있다.

2) 삼육칠하우스



서울 관악구 관악로 164 / 서울대입구역 샬러수길에 있는 삼겹살 무한리필 맛집.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한다. 숙성 시킨 고기를 그릴에 구워내는 방법으로 고기의 잡내를 없애주고 풍미와 육즙을 한층 더 높여준다. 대표 메뉴로는 무한리필이 가능한 돈코츠 그릴 삼겹살과 라이스 피자가 있다. 고기를 파는 가게 같지 않게 카페 분위기의 캐주얼하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방송 '생방송 오늘저녁'과 '맛있을 지도 시즌3'에 출연한 적이 있다.

돈코츠 그릴 삼겹살		168시간 저온 냉장숙성 후 돈코츠 그릴드 베이스를 더한 돈코츠 그릴삼겹살로 가격은 성인은 11900원, 학생은 9900원으로 무한리필이 된다.
라이스 피자		밥 위에 고기와 치즈를 듬뿍 넣고 매콤한 소스를 뿌린 볶음밥으로 1인당 3000원이고 2인 이상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한다.



소감

■ 3학년 1반 김현진

우리 마을 교과서 만들기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내가 우리 동네라고 생각해서 그 장소를 설명하려고 찾아보니 다른 동네였다. 난 병원을 했는데 생각보다 병원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안 섰던 것 같다. 그래서 나만 이번 프로젝트가 제일 어려운 것 같다. 그래도 이번 프로젝트를 하며 서울대는 우리 동네에 있지만 서울대학병원은 다른 동네에 있고, 보라매 병원도 동작구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병원을 하면서 되게 새로운 걸 많이 안 것 같다. 대학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해야 되서 진료 받기도 복잡한 것 같은 것들은 알았다. 그리고 문병을 갈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서 꽃 화분이 감염 및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병실 내 애완동물, 꽃, 화분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처음 알았다. 새롭게 배운 것 같아서 정말 좋았던 것 같다.

■ 3학년 1반 조연서

이번 프로젝트는 관악구라는 주제로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학습지나 자료집이 아닌 마을교과서라는 것도 신선했다. 늘 가까이 하는 곳이지만 조사하거나 관심을 가져 본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많은 장소나 행사 등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저번에도 이번프로젝트와 비슷한 자료집을 만들었지만 이번 마을교과서는 우리 동네라서 더 쉽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 보는 곳이나 가보고 싶은 곳들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

■ 3학년 2반 김진주

이번 마을 교과서 프로젝트는 우리가 직접 교과서 내용을 만드는 활동이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는데, 전에 했던 수학여행 관련 프로젝트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저번보다 어떻게 해야 더 쉽게 내용을 정리 할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더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사실 프로젝트 시작 전에 내가 사는 관악구에 내용물만한 특징이 있을까? 했었는데 직접 해보니 관악구의 새로운 점을 많이 알게 되었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예시 책자들과 관련 내용이 담긴 책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교과서를 내가 만든다는 점이 처음 들었을 때 신기하다 느꼈다. 그리고 만들면서 내가 사는 관악구에 대해 더 알게 된 것 같아 좋았다. 다른 친구들이 만든 단원도 보면서 내가 모르는 관악구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다.

■ 3학년 2반 최민서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마을의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했던 것 같다. 처음에 모두가 맡게 될 대단원을 정할 때 내가 원하던 단원이어서 조사하고 만드는 내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는 관악의 축제를 맡게 되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악구에 이렇게 많은 축제가 있는지 몰랐었다. 그중에서도 내가 참여해본 축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 많이 아쉬웠다. 나처럼 관악구에서 하는 축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더욱 열심히 조사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사진자료들이 오래전자료들이 많았고, 적절한 사진들을 고르는 게 어려웠고, 잘 알려지지 않은 축제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봐도 자료가 거의 안 나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열심히 만들면서 내가 한권의 교과서를 만든데 동참한 다는 것에 대해 뿌듯했다. 지금까지 했던 우리 마을에 대해서 했던 프로젝트들이 추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



■ 3학년 3반 30번 조한별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너무 막막했다. 우리 모두가 다른 모둠과 달리 한 명이 부족하기도 했고, 다들 의욕이 없어 보여서 걱정을 많이 했다. 주제를 정하고 각자 어떤 것을 맡을지 정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별 탈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동네, 우리 관악구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 이런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더라면 관심도 갖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을 것 같아서 마을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막상 할 때는 너무 귀찮고 막막하기도 했지만 하고 나면 뿌듯하다. 나 또한 이 마을 교과서를 보며 내가 우리 마을에 대해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찾아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즐거웠던 활동이었다.

■ 3학년 4반 오진욱

이번 프로젝트는 나에게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다. 예전에도 응급실을 갈 만한 상황이었을 때 어디가 어떻게 봐주는지, 어디로 가야지 무슨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맨날 아무 곳이나 가서 봉변을 당했는데 이 수행을 하고 어디어디가 무슨 검사를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 나중을 위한 대비를 하게 된, 나에게 도움을 준 프로젝트가 됐던 것 같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조금 엉성하고 힘들었다.

■ 3학년 4반 윤서영

주제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으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어 새로웠다. 나의 주제는 지역기관이라 여러 기관 중 어떤 곳을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기도 했고 문화시설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혼란스러웠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을 선택하게 되었다. 우리 마을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은 좋았지만 내용을 조사하고 편집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특히 편집할 때 친구들의 내용을 모아야 했는데 글꼴이라든지 글씨 크기가 다 안 맞추어져서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다. 모둠원 중 한 명은 자신이 맡은 부분을 제 시간 안에 보내주지 않아서 완벽하게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모둠원 모두 열심히 각자 맡은 내용을 조사해주었다.

■ 3학년 4반 장나영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가 사는 이 관악구의 맛집과 의료시설 등 유명한 곳을 소개하고 알아보는 프로젝트였다. 내가 직접 살고 있는 곳에 대한 프로젝트여서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활동을 해보니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걸 알았다. 그래도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몰랐던 곳도 알게 되고 내가 사는 곳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깨달았다. 나는 관악구의 맛집을 맡았는데 그래서 관악구의 맛집을 많이 알게 되었고 나중에 꼭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나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다. 이런 프로젝트를 여러 차례 거듭할 때마다 항상 힘은 들지만 얻는 것도 많아 뿌듯하다.

■ 3학년 4반 류재형

이번 프로젝트는 관악구에 어떤 것들이 많이 있는지 알게 되었고 각자 키워드를 정해서 관악구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지겨웠지만 찾아보니 이곳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맡은 키워드는 시장인데 관악구에 시장은 인현시장 하고 신원시장 밖에 몰랐지만 다른 시장들도 알게 되었다.



■ 3학년 4반 김지성

이번 마을 교과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지금껏 또 지금도 이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힘들기도 하고 막막하다. 그래도 국어는 끝내서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이걸 조사를 하면서 생각보다 우리 마을에 있을 건 다 있고 요즘 갈수록 젊은 세대들이 이용하기 좋은 것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다. 또한 요즘 시대에 그 도시에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으면 언젠가 발달이 되고 그 지역이 결국 번창해 가는 걸 보니 지방이나 신도시에도 지하철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고등학교 가서도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되게 수월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3학년 4반 김진아

처음에 이 마을 교과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막막했었다.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주제를 해서 흥미롭긴 했다. 우리 모듬 주제는 '우리 마을 문화생활' 이다.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다. 다른 모듬이랑 살짝 겹칠 수 있는 주제였어서 맞추기가 조금 힘들었다. 마을 교과서 만들기 인만큼 내가 살고 있는 관악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었다. 편집 할 시간도 부족 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프로젝트 이다. 또한, 총 편집을 내가 했는데 모듬원 친구들이 양식에 맞춰서 보내주지 않아서 힘들었다. 나중에 우리 반이 만든 마을 교과서가 실제로 책으로도 나온다고 한다. 정말 기대가 된다.

■ 3학년 4반 이승욱

이번 프로젝트는 관악구를 모르는 사람을 대리고 관악구에 대하여 이 책을 보면 한 번에 알 수 있게 만들라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거 같다 왜냐하면은 나도 아직 우리 마을을 잘 모르는데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이거를 보고 아! 이런 곳에는 이게 있구나 할 정도로 만들라는 명령에 힘이 들었던 거 같고 내가 선택한 주제인 도서관은 많이 힘들었던 거 같아 왜냐하면은 일단은 도서관이라는 게 종류도 구립, 시립, 사립, 공립 이런 것처럼 많은 종류의 도서관이 있는데 이거를 만들라니 갑자기 생각도 없어지고 많이 힘이 들었고 하지만 힘든 만큼 보람도 있었고 재미도 있고 이것을 만들면서 이 도서관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알 수가 있고 설명은 적기가 힘이 들었지만 힘이 든 만큼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던 마을 교과서 만들기 프로젝트였던 거 같아서 좋았다.

■ 3학년 3반 최준영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관악구에 대해 더욱 많은 걸 알게 되었던 것 같다. 나는 주제를 관악의 보물로 잡아 저번에 했던 관악의 보물 프로젝트를 관악중학교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보았고 우리 반의 관악의 보물만이 아니라 이번 마을교과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참고 하기 위해 다른 반에서 올린 것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관악구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다.

■ 3학년 4반 명재완

남채운이 가장 고생 많은 것 같다(ㅋㅋ).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관악구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관악구에서도 여성안심키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관악구에는 아직 고쳐지지 않은 가로등이 많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더욱 아쉬운 점은 우리 귀여운 하경이가 하지 않아서 내용이 부족하지만 마무리가 잘된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짜증나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가 살기 좋은 동네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교육시설, 여가시설 등이 잘 마



런되어있고, 어른들도 또한 즐길 수 있는 장소도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다음에는 우리가 사는 관악구를 둘러보며 관악구에 좀 더 다가가고 싶다. 아직 내가 모르는 관악구를 알기위해 돌아다녀보고 싶다. 다음에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음 좋겠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

■ 3학년 4반 남채윤

이 소감은 3분전에 작성하였지만 파일이 통째로 날아가 버려서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적는다. 처음 모둠을 짰을 때는 위험인물이 모여 있어서 한숨만 나왔었다. 그러나 대단원과 소단원 제목을 정할 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빠르게 진행 할 수 있었다. 보고서를 작성 할 때는 주제가 재미있는 주제라서 즐겁게 할 수 있었다. 물론, 그 즐겁게 한 보고서가 한순간에 날아가서 멘탈이 깨졌지만 뭐 나는 다시 했다. 아무튼 보고서가 날아가는 건 처음 경험해봐서 죽고 싶었으나 끝내니 굉장히 뿌듯하다. 그리고 모둠원들이 의외로 잘해줘서 고맙고, 지도 만드는 게 되게 내 적성에 맞는 거 같다. 마을 프로젝트가 국어뿐만 아니라 역사, 미술, 사회 등 많은 과목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는 그러려니 한다. 우리 동네 관련이어서 재미있었다. + 앞으로는 저장을 습관화하겠습니다.

■ 3학년 3반 이영인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그동안 해왔었던 프로젝트 중 그나마 쉬운 프로젝트인 것 같다. 물론 분량도 적고 많은 분량을 우리조의 조장인 경식이가 해주어서 그런 것 같다. 내가 맡은 벽화길이라는 소단원을 고른 이유는 일단 관악중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알듯 학교를 오는 길 중에 볼 수 있는 많은 벽화들이 이 생각이 났고, 또 관악중학교 담벼락 고백길 말고도 더 많은 벽화들을 보고 싶어서 소단원 벽화길을 골랐다. 관악구 벽화길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내가 알기론 벽화를 그리는 이유가 그저 골목길들이 밝아 보이기 위해서 그리는 줄만 알았는데, 이곳 관악구 행운동 골목골목에 벽화를 그리는 이유는 조금 남달랐다. 바로 여성 1인 가구가 절반에 육박하는 관악구 행운동에서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노력 끝에 행운동의 절도율은 현저히 낮아졌고, 강간 같은 중대 범죄는 사라졌고 지역 주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10% 가량 감소했다고 한다. 정말 신기하면서도 조금은 믿기지 않았지만 관악구의 범죄율이 정말로 줄었다고 한다.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관악구의 벽화길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아본 재미있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다.

■ 3학년 3반 8번 양경식

분명 우리 모듬원은 4명인데 파일이 3개 밖에 없는데 아쉽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만의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쉽고 단순한게 아니다. 하지만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게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반, 다른 모듬과 주제를 비교하면 우리 모듬의 주제가 아마 가장 특이하고 한편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전 프로젝트를 보고 그 프로젝트 중에서 좋은 것 한두 개 골라내서 파일을 만들면 됐다. 또 제목 자체가 '관악만의 길'이기 때문에 약간 특이하고 괜찮은 주제를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작업이다. 그 작업을 잘 완성해서 이 파일을 완성시킨 것이 기쁘기도 하다. 교과서를 우리가 만든다 보니 교과서 만드는 게 되게 힘들고, 내가 만약 다시 만들게 된다면 주제도 교과서에 넣을 만한 주제가 괜찮을 거 같다. 우리가 한 것 자체가 약간 힘들었다. 하다보니 가장 힘든 건 모듬원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서 정보가 겹치는 게 좀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해내서 책을 본다면 되게 뿌듯할 거 같고, 관악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다. 다음에 다시 하게 된다면 이렇게 양을 꼭 채워야 한다는 강박증보단 질을 택하고 싶다. 하지만 내가 모듬장이라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만약 이게 교과서로 돼서 나온다면 나는 사서 보관하고 싶다. 충분히 기억에 남을 만한 프로젝트고 내년에도 했으면 좋겠다~ (나만 당할 수 없잖아~ ^^)

◀ 제 2 부 ▶

I. 마을역사탐구 프로젝트



지난 6월, 역사 수행평가로 ‘마을역사탐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역사가 교과서 속의 박제된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 이웃, 마을, 이어서 내 마음 속에 펄떡펄떡 살아 뛰는 삶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최대한 많은 아이들의 배움과 느낌을 실었습니다. 일부 오류가 있는 내용이나 어른들의 말투를 담은 사투리,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의 단초들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3학년 역사 담당 교사 박래광

관악구 관련

• 인터뷰 : 3-1 이하영(이○○ 아버지 이○○ 님)

문 : 어렸을 적부터 어떻게 자라 오셨는지, 어쩌다가 관악구에 정착하게 되셨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답 : 네가 이번에 농촌체험 갔던 충청남도 서천, 그 곳이 내 고향이야. 너도 가봐서 알겠지만 논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분들이 많은 곳이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중학교 선생님을 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엄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지.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대전으로 이사를 갔어.
 문 : 잠시만요, 관악구로 바로 오셔야 하는데? 그래야 스토리가 완성되는데요?
 답 : 대전도 인구 많은 도시야. 대전 분들이 들으면 서운해 하실거야.
 문 : 그래도 서울에 오시게 된 경로는 설명해 주세요.
 답 : 고등학교를 대전에서 다니고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학교랑 가까운 관악구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지.

• 인터뷰 : 3-2 유현진(유○○ 할아버지 전○○ 님)

문 : 봉천천이 어디예요?
 답 : 옛날 원당 초등학교 앞 부분에서 원당시장까지 개천이 넓게 있었는데, 거기를 봉천천이라고 했지.
 문 : 왜 복개를 했어요?
 답 : 그때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낙성대 공원이나 이런데가 다 논, 밭이었는데 사람들이 모이고 집을 짓고 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도로가 필요했고, 또, 봉천천이 냄새도 심해서 도로로 덮었지.
 문 :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답 : 글썄, 기억에 우리한테 물어보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물어봤다고 해도 반대를 하거나 하진 않았을거야.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지, 요즘처럼 미리 얘기하고 동의하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다. 할아버지가 관심이 없었는지 기억이 없네.

• 인터뷰 : 3-3 박현수(박○○ 할아버지)

문 : 옛날이랑 지금이랑 이곳이 어떻게 달랐나요?
 답 : 옛날에는 지금이랑 많이 달랐지. 옛날에는 저기 봉천천도 있었고 고개쪽 도로도 굉장히 좁아서 2차선이었어. 지금은 4차선이잖아. 길도 원래는 산이었는데 다 깎은거야. 넓히기도 하고. 순환도로도 없었어, 그때는. 길이 포장도 안되고 말할 것도 없었어. 난민촌이었어, 여기.
 문 : 옛날에 봉천천이 복개되었다고 하던데 봉천천에 대해서 아시나요?
 답 : 아, 이게 다 복개한거야. 도로도 다 있지? 그것도 다 복개해서 한거야. 옛날에는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개울이었는데 지금은 다 복개한거야. 도로 아래에는 아직도 물이 흐를거야.
 문 : 지하철 2호선이 들어왔을 때 어땠나요?
 답 : 그거 되는 바람에 좋아졌지 관악구는. 그전에는 교통이 굉장히 나빴잖아. 근데 지하철 들어오는 바람에 편리해지고, 더 좋아졌지 관악구는.

• 인터뷰 : 3-3 서남경(서○○ 아버지 서○○ 님)

문 : 아버지가 어떻게 지금처럼 관악구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세요.
 답 : 나는 서울 잠실에서 태어났는데 3,4살 쯤에 전라도 순창으로 갔어. 순창에서 농사를 짓다가 잘 안되어



서 전라북도 이리(현재의 익산)로 갔어. 당시로 치면 지금의 강남 같이 잘나가는 곳이야. 이리 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떻게 삼성그룹에 입사를 했어. 그리고 군대를 가기 위해 나왔고 군대를 다녀와서는 대학을 가기 위해 경기도 안양으로 갔지. 경기도 안양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을 얻어서 이사를 다니다가 약 10년 전 경기도 과천을 거쳐 관악구에 정착하게 되었어.

• 인터뷰 : 3-4 남채운(남○○ 아버지 남○○ 님)

문 : 봉천천은 처음에 어디에 있었나요?
 답 : 봉천천은 그 인현초 정문에서 기사식당이 있는 왼쪽 길로 빠지면, 카페베네 있는 라인 있잖아. 거기서부터 사랑의 병원으로 빠져서 원당초 앞길, 서울대사거리 위 가는 방면까지 쪽 있었지.
 문 : 봉천천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답 : 봉천천 있었을 때가 아바 어렸을 적이니가, 원당초 앞쪽에서 동네 형들이랑 맨날 물놀이하고 그랬어. 그 때는 물이 엄청 많았고 또 깨끗했으니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던 것 같아. 그게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 근데 지금은 봉천천을 다 도로로 덮어버렸으니가 아쉬워. 그 때의 상황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언제부터부터 봉천천이 차도로 바뀌었더라고. 10대 때여서 기억이 잘 안나.
 문 : 그럼 다음 질문이요. 낙성대공원에 대하여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답 : 낙성대공원도 아주 예전부터 있었지. 나 어렸을 때는 관악산 계곡에도 물이 엄청 많아서 거기서 수영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말라버려서 등산하는 곳 밖에 안되잖아. 아무튼 낙성대공원 공사했었잖아. 엄청 크게. 너 초등학교 다닐 때였나? 동상 위치도 이동하고, 안쪽에 안 나오던 분수도 바꾸고, 작은 도서관도 2개 생기고. 아, 얼마 전에는 낙성대공원 바로 옆 그 센터 앞에 있는 곳도 깨끗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곳 만들었잖아. 이걸 얼마 전이라서.

• 인터뷰 : 3-4 윤서영(윤○○ 할아버지 윤○○ 님)

문 : 관악구에 정착하실 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답 : 자식들 학교 보내려고 남원에서 서울로 올라왔지. 봉천 11동 쪽에 시장이 모여 있었거든. 그래서 그곳에서 자리 잡았지.
 문 : 서울로 올라오실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답 : 시골에 있었지만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서울에 온다는 것 자체가 불안했지.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일이 마땅치가 않으니가. 그래도 학교는 제대로 보내야 된다는 생각에 서울로 왔어.
 문 :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말씀해주세요.
 답 : 시장 쪽에서 나는 장사일 하고 너희 할머니는 공사장 일손을 도왔어. 사업도 몇 번 했고. 그렇게 돈 모아서 여기로(지금 살고 계시는 곳) 집을 옮겼지.

• 인터뷰 : 3-5 유성수(유○○ 아버지 유○○ 님)

문 : 서울대 이전에 대해서 겪었거나 들은 일이 있나요?
 답 : 원래 서울대가 혜화동과 곳곳에 있었는데, 관악구로 이전을 하였어. 왜냐면 곳곳에 대학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관악구로 이전시켰지.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했을 거야. 그리고 혜화동엔 대학로가 생겼지.



• 인터뷰 : 3-5 유지아(유○○ 할머니 정○○ 님)

문 : 할머니께서는 어쩌다 관악구에 오시게 되었어요?
 답 : 옛날에는 시골에서 살다가 애들 고등학교도 보내야 되고, 직접 가게를 운영하려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이야. 가게는 방배동에 차리고 난 그 당시에 관악구 집이 싸서 여기로 이사를 오게 되었지.
 문 : 무슨 가게를 운영 하셨어요?
 답 : 광고업 쪽의 현수막 만드는 일을 했어. 방배동에 가게를 차렸지. 처음엔 남편만 일하고 요즘 말로는 알바라고 하나?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해 나갔지.
 문 : 관악구는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 하세요?
 답 : 장점은 요즘 더 좋은 건물을 짓고 산업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옛날처럼 시내로 안 나가도 되고 관악산도 있어서 등산하러 가기 좋고, 단점은 여기가 산을 깎아 만든 지대여서 길이 좁거나 언덕이 높아서 나 같은 노인네들은 지나다니기 힘든 것 같아.

• 인터뷰 : 3-5 김나현(김○○ 아버지 김○○ 님)

문 : 관악구에 언제부터 사셨어요?
 답 : 6살 때 엄마, 아빠 따라 서울로 올라왔지. 벌써 관악구에서 40년이나 살았네.
 문 : 봉천천 복개하는 것 보셨어요?
 답 : 응. 원래 봉천천이 낙성대부터 보라매공원까지 이어져 있었어. 근데 그걸 다 도로로 만들어 버렸어.
 문 : 그 전에 봉천천은 어땠어요?
 답 : 거기서 아이들이 많이 놀았지. 수영도 하고 겨울엔 푹방에서 구슬치기, 쥐불놀이, 연날리기도 하고. 놀데가 많았는데 복개하면서 아이들 놀 곳이 없어졌어.

• 인터뷰 : 3-6 김승현(김○○ 외할머니 이○○ 님)

문 : 할머니는 어떻게 관악구로 이사 오게 되셨어요?
 답 : 할아버지 직장을 따라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서 20년을 살았는데, 이모가 승민 형아를 낳게 되었지.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전문직인 디자이너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되었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서울로 이사 오게 되었고, 너희 엄마가 결혼해서 이 동네로 시집을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곳에 정착했지.
 문 : 그럼 저랑 승민 형을 키워주시려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고향인 부산을 떠나신 거네요.
 답 : 너희 부모님처럼 맞벌이를 하는 집에선 할머니가 손자를 봐 주는 일은 흔한 일이지.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취직해 전문직장인이 되어 인정받고 다니는데, 육아 때문에 직장을 관두게 할 수는 없었지. 야근 많고 출장 많은 직업이라 남의 손에 맡길 수도 없고.
 문 : 힘들거나 억울하진 않으셨어요?
 답 : 아이를 키우는 건 힘이 들지만, 커가는 걸 보는 것도 행복이지. 너희들이 이렇게 이쁘게 커 줬으니가. 유치원이며, 스포츠센터를 따라 다니다 보니 또 여기서 친구도 생기게 되고. 나 젊었을 땐 상상하지 못했지만 내가 손주를 봐 주면서 내 딸들은 좋은 직장에서 능력 인정 받으면서 회사도 다녔고.



소감

■ 3학년 2반 조용비

역사 프로젝트를 마치고 내가 모르던 이야기를 할머니께서 알려주시면서 그때 그랬었구나 라는걸 알 수 있게된 프로젝트인거 같다. 할머니와 오래 이야기를 나누어 본거 같아 기분도 좋았다.

■ 3학년 2반 김하연

재미있었다며 고맙다, 열심히 하라는 등의 말씀에 힘입어 열심히 했다. 나에게도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해 아마도 그분들도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분들 덕에 우리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든다. 아프신 분들도 처음에는 내가 아프시면 꼭 안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자 전혀 아프지 않다가 인터뷰에 참여해 주셨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음료수와 파스도 사드리며 한걸음 더 친해지는 좋은 시간이었다.

■ 3학년 2반 김하은

1학년 때랑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그 때와 다르게 주제를 정해주셔서 그런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하시기에 더 편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그 때는 뭣도 모르고 옛날 얘기 듣듯이 들은 거라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린 것 같았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머릿속에도 들어오고 괜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고 어느 면으로는 안스럽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짐을 이런 수행을 통해서 몸으로 다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냥 우리는 먼 옛날에 일 어났던 일들을 배우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바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겪으셨던 일들을, 꽤나 오래 전부터 살아오셨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역사와 같은 분들과 아무 생각 없이 함께 지내왔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붙임성이 떨어지는 건지 가족과 많은 대화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 적이 없었는데, 대화가 적었던 손녀가 다가와 옛날 얘기를 들려달라고 꼬르르 달래갔으니 얼마나 좋으셨을까? 죄송스럽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것은 이런 의미로 선생님께서 이런 수행을 내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와 추억 같은 것을 별로 쌓을 수 없거나, 얘기를 많이 하지 않거나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소통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고,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3학년 3반 서남경

난 우리 아빠를 통해 학교 수행평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아빠께 인터뷰 해주실 수 있냐고 여쭙어 보았더니 단박에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아빠와 수행평가를 해보니까 좋았고 당시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에게 직접 말을 듣고, 교과서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전해 들어서 더 좋았고 굉장히 실감났다.

■ 3학년 4반 남채운

봉천천이 아빠가 얘기하시는 복개천이었다. 내가 항상 다니는 그 큰 길이, 사거리가 30년 전만 해도 물이 흘렀다는 것이 상상도 안 된다. 그 때 태어났으면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아빠랑 친구였겠지. 아무튼 다시 도로를 뜬어내서 물을 흐르게 만들면 너무 신기할 것이다. 역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잘 못 들었나. 봉천천을 다시 열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셨던 것 같다. 또 낙성대 공원은 나에게 아주 친근한 곳이고, 낙성대공원이 한창 공사한다고 시끄러웠던 것이 기억에 난다.



도서관이 생겨서 어렸을 때 그 곳에서 책도 읽었다. 이번 인터뷰로 인해서 옛날 생각도 떠올려보아 기분이 좋고, 하나도 몰랐던 봉천천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 신기하다.

■ 3학년 4반 장나영

나는 1학년 때 국어 프로젝트로 노인정에 가서 인터뷰를 해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것은 딱히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하필 인터뷰하는 날이 일요일이어서 노인정이 거의 다 닫았던 것이 가장 큰 난관이였다.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결국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 노인 분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인터뷰는 정말 좋게 마무리되었고 이 프로젝트로 인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걸 직접 겪으신 어른 분들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더욱 관심이 가게 되었다.

■ 3학년 4반 장민국

우선 내 주변에 관악구에 오래 사신 분이 없어서 경로당을 찾아야 했는데 주말에 문을 닫거나 사람이 없는 곳이 많아 힘들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경로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사실과 다른 관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내용은 조금 충격적이었고, IMF는 조금 아쉽기도 하고 비극적이었던 것 같다. 현대 역사는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는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도 나중에 이런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1학년 때도 인터뷰를 했지만 그때보다 좀 더 다가오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 3학년 5반 유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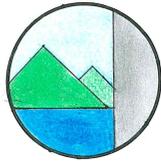
일단은 우리 아빠가 이렇게 많은 사실을 알 줄은 정말 몰랐다. 하루하루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그런 것들은 잊고 사실 잘 알았는데 말이다. 아무튼 이런 일을 계기로 아빠와 사이도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인터뷰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며, 마음의 거리가 한껏 가까워진 것도 같다. 아빠가 이런 옛날 일들을 알고 있으니, 나도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잘 한번 면밀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뉴스, 신문도 다양하게 볼 것이다.

■ 3학년 6반 정세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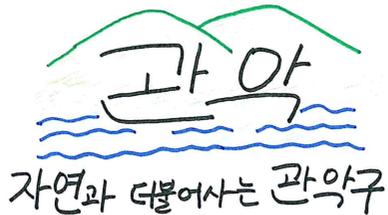
처음에 엄마가 기억이 안난다고 해서 짜증났다. 나는 지금을 꼭 기억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 내 자식이 나처럼 숙제를 할 때 힘들지 않도록 기억해서 술술 말해줄 것이다. 그래도 한 시간 동안 엄마가 고민한 끝에 기억해내서 다행이었다. 평소 교과서에서 배웠지만 실제로 들으니 더 와닿았다. 교과서로만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듣는 것도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했다. 상상하면서 들으니 더 재밌었고 기회가 된다면 더 오래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다.



II. 관악구 지역 브랜드



자연과 함께하는
관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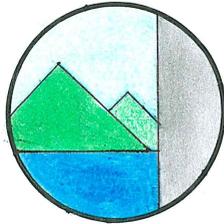
세계화와 지역화 프로젝트 1 : 전통시장 살리기 (5점)

세계화와 지역화 프로젝트 2 : 지역브랜드 : 슬로건과 로고(또는 캐릭터) 만들기 (5점)

우리 지역(관악구, 봉천동, 행운동 중 택1)의 특성 파악하기
 * 개인 활동 (과안구 하면 떠오르는 단어 10가지 이상)
 * 모둠 활동(마인드맵 형식으로 함께 매개체 하나를 개별적으로 작성)

관악산	관악구
강감산	관악중학교
낙성대	서울대
산수대권	청계천
사조수길	망길
비둘기	서로
산대기	버거길
안근	강배기

우리 지역의 슬로건과 로고(또는 캐릭터) 개발하기(개인 활동)
 * 색연필, 색사인펜 등을 이용하여 칼라로 작성하기 (우수작은 '마을교과서'에 실을 수도 있음)

 <p>자연과 함께하는 관악</p>	<p>슬로건은 우리 관악구 관악산, 청계천 등 여러 산과 청계천, 도립천 등 여러 강이 있 자연과 함께하는 관악 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문구는 슬로건에 맞춰 관악구의 사면을 표현하 기 위해 강과 산, 푸른 하늘을 왼쪽에 그려놓고 모든쪽에 회색 건물들 그려넣어 자연과 함께하는 관악을 표현하였다.</p>
---	--

평가 기준(각 1점)(자기 평가 : 점)
 1. 떠오르는 단어 10가지 이상 적었는가? ()
 2. 마인드맵을 알차게 작성하였는가? ()
 3. 칼라로 작성하였는가? ()
 4. 로고(또는 캐릭터)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담고 있는가? ()
 5. 로고(또는 캐릭터)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었나? () * 제출 날짜를 지켰는가?(감점으로 처리)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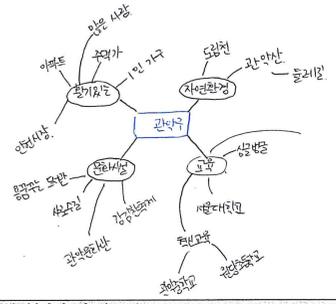


세계화와 지역화 프로젝트 1 : 전통시장 살리기 (5점)

세계화와 지역화 프로젝트 2 : 지역브랜드 : 슬로건과 로고(또는 캐릭터) 만들기 (5점)

3학년 (1) 번 (22) 번 (권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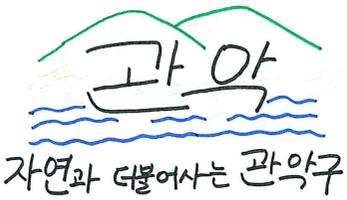
우리 지역(관악구, 봉천동, 행운동 중 택1)의 특성 파악하기	
* 개인 활동 ('관악구' 하면) * 모둠 활동(마인드맵 형식으로 함께 얘기 나누며 개별적으로 작성) 떠오르는 단어 10가지 이상)	
서울대학교	낙성대공원
관악산	강감찬 장군
관악중학교	에그영작
도림천	새림
농산물	도서관
살방길	둘레길
사도길	시골
구덕가	혁신학교



우리 지역의 슬로건과 로고(또는 캐릭터) 개발하기(개인 활동)

* 색연필, 색사인펜 등을 이용하여 칼라로 작성하기
(우수작은 '마을교과서'에 실을 수도 있음)

* 로고(또는 캐릭터) 설명
(자세하게)



관악구에는 관악산과
도림천, 봉천천이 있어 자연은 구경이
위 아래 산과 하천을
따라다니고 가운데에는
관악이라고 써있다.

평가 기준(각 1점)(자기 평가 : 5 점)

1. 떠오르는 단어 10가지 이상 적었는가? (0)
2. 마인드맵을 알차게 작성하였는가? (0)
3. 칼라로 작성하였는가? (0)
4. 로고(또는 캐릭터)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담고 있는가? (0)
5. 로고(또는 캐릭터)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었는가? (0) * 제출 날짜를 지켰는가?(감점으로 처리)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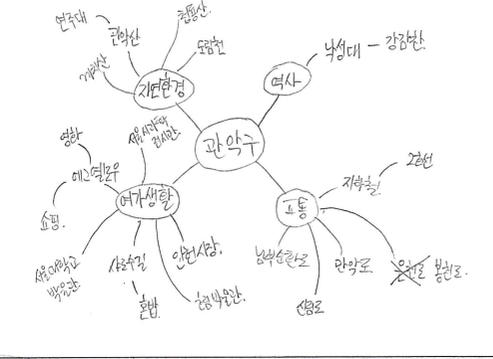


세계화와 지역화 프로젝트 1 : 전통시장 살리기 (5점)

세계화와 지역화 프로젝트 2 : 지역브랜드 : 슬로건과 로고(또는 캐릭터) 만들기 (5점)

3학년 (2) 번 (21) 번 (김나경)

우리 지역(관악구, 봉천동, 행운동 중 택1)의 특성 파악하기	
* 개인 활동 ('관악구' 하면) * 모둠 활동(마인드맵 형식으로 함께 얘기 나누며 개별적으로 작성) 떠오르는 단어 10가지 이상)	
관악산	낙성대공원
서울대학교	과학관
에그영작	뽕
인현시장	관악중
관악포라차	사랑의병원
고백길	관악구청
강감찬	1인가주
양지병원	훈밭



우리 지역의 슬로건과 로고(또는 캐릭터) 개발하기(개인 활동)

* 색연필, 색사인펜 등을 이용하여 칼라로 작성하기
(우수작은 '마을교과서'에 실을 수도 있음)

* 로고(또는 캐릭터) 설명
(자세하게)



관악구엔 관악산이 가장
먼저떠올라서 관악산
캐릭터로 정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자리잡은
관악구. 두원을
활용한 자연생태이유적인
캐릭터로 만들어졌다.

캐릭터를 관악산으로 정할
기대에는 슬로건도 캐릭터
테리노칭을 살펴보았다.
산이있으니까 숲이있고
푸른색이 관악구에 잘 어울
릴것같아서 맑고 푸른만
약 디자인 정했다.

평가 기준(각 1점)(자기 평가 : 5 점)

1. 떠오르는 단어 10가지 이상 적었는가? (0)
2. 마인드맵을 알차게 작성하였는가? (0)
3. 칼라로 작성하였는가? (0)
4. 로고(또는 캐릭터)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담고 있는가? (0)
5. 로고(또는 캐릭터)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었는가? (0) * 제출 날짜를 지켰는가?(감점으로 처리) (-1점)



세계화와 지역화 프로젝트 1 : 전통시장 살리기 (5점)

세계화와 지역화 프로젝트 2 : 지역브랜드 : 슬로건과 로고(또는 캐릭터) 만들기 (5점)

3학년 (2)반 (24)번 (김진주)

우리 지역(관악구, 봉천동, 행운동 중 택1)의 특성 파악하기	
* 개인 활동 ('관악구' 하면 떠오르는 단어 10가지 이상)	
서울대학교	관악산
낙성대	관악중
서울	행운동
낙성대공원	egg yellow
경강관	신림
포도물	서울대입구
메덕	사관사길
시장	별



우리 지역의 슬로건과 로고(또는 캐릭터) 개발하기(개인 활동)
* 색연필, 색사인펜 등을 이용하여 칼라로 작성하기 (우수작은 '마을교과서'에 실을 수도 있음)



관악구하면 제일 먼저 관악산이 떠올랐기 때문에 나무를 바탕으로 한 캐릭터를 생각해냈고, 나뭇잎 부분을 대카라카로 표현, 머리의 맨 윗부분은 산 모양으로 표현. 관악구의 낙성대를 표현하려 별을 넣어 종명함 밝은 이미지를 표현하려 함. 전체적으로 자연의 따뜻한 과 관악산의 이미지를 담으려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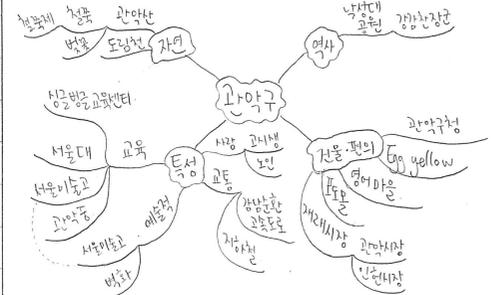
평가 기준(각 1점)(자기 평가 : 점)
1. 떠오르는 단어 10가지 이상 적었는가? () 2. 마인드맵을 알차게 작성하였는가? ()
3. 칼라로 작성하였는가? () 4. 로고(또는 캐릭터)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담고 있는가? ()
5. 로고(또는 캐릭터)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었는가? () * 제출 날짜를 지켰는가?(감점으로 처리) (-1점)

세계화와 지역화 프로젝트 1 : 전통시장 살리기 (5점)

세계화와 지역화 프로젝트 2 : 지역브랜드 : 슬로건과 로고(또는 캐릭터) 만들기 (5점)

3학년 (2)반 (28)번 (조성지)

우리 지역(관악구, 봉천동, 행운동 중 택1)의 특성 파악하기	
* 개인 활동 ('관악구' 하면 떠오르는 단어 10가지 이상)	
관악산	서울대
북화	자연
서울미도고	예술·문화
사관(+)고시생	인헌시장
낙성대공원	강감산
관악구청	Egg yellow
포도물	영어마을
재래시장	강남한강과도



우리 지역의 슬로건과 로고(또는 캐릭터) 개발하기(개인 활동)
* 색연필, 색사인펜 등을 이용하여 칼라로 작성하기 (우수작은 '마을교과서'에 실을 수도 있음)



늙은 동물의 모습을 그려 노인인데도 공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많은은 남강에게 관악구의 고시생과 노인을 표현했고, 어게빌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듯 관악의 가장귀이인 산을 어게빌처럼 그려 넣었으며, 풀잎이 안경과 책으로 서울대, 서울미도고 등을 표현하였고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그렸다

평가 기준(각 1점)(자기 평가 : 점)
1. 떠오르는 단어 10가지 이상 적었는가? () 2. 마인드맵을 알차게 작성하였는가? ()
3. 칼라로 작성하였는가? () 4. 로고(또는 캐릭터)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담고 있는가? ()
5. 로고(또는 캐릭터)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었는가? () * 제출 날짜를 지켰는가?(감점으로 처리) (-1점)



세계화와 지역화 프로젝트 1 : 전통시장 살리기 (5점)

세계화와 지역화 프로젝트 2 : 지역브랜드 : 슬로건과 로고(또는 캐릭터) 만들기 (5점)

3학년 (2) 반 (30) 번 (최민서)

우리 지역(관악구, 봉천동, 행운동 중 택1)의 특성 파악하기	
* 개인 활동 ('관악구' 하면 * 모듈 활동(마인드맵 형식으로 함께 얘기 나누며 개별적으로 작성) 떠오르는 단어 10가지 이상)	
관악 산	강강찬 축제
철쭉 축제	도림천
낙성대공원	장블랑제리
강감찬 양근	신림동 순대타운
서울대학교	포도밭
낙성대역	행동순대축제
샤롯데길	
도림천	
우리 지역의 슬로건과 로고(또는 캐릭터) 개발하기(개인 활동)	
* 색연필, 색사인펜 등을 이용하여 칼라로 작성하기 (우수작은 '마을교과서'에 실을 수도 있음)	
<p>슬로건</p> <p>배우고 꿈꾸는 관악</p>	<p>* 로고(또는 캐릭터) 설명 (자세하게)</p> <p>관악구에는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대학생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만날 배우고, 공부 하고 자신들의 꿈을 찾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다.</p>
<p>* 캐릭터</p>	<p>관악구 하면 '강감찬 장군'이 많이 생각하는데 나는 강감찬 장군이 우리 관악구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캐릭터를 그릴 때 강감찬 장군을 몽상하게 그려서 마치 관악구를 안전 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그렸습니다.</p>
평가 기준(각 1점)(자기 평가 : 점)	
1. 떠오르는 단어 10가지 이상 적었는가? () 2. 마인드맵을 알차게 작성하였는가? ()	
3. 칼라로 작성하였는가? () 4. 로고(또는 캐릭터)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담고 있는가? ()	
5. 로고(또는 캐릭터)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었나? () * 제출 날짜를 지켰는가?(감점으로 처리) (-1점)	

세계화와 지역화 프로젝트 1 : 전통시장 살리기 (5점)

세계화와 지역화 프로젝트 2 : 지역브랜드 : 슬로건과 로고(또는 캐릭터) 만들기 (5점)

3학년 (3) 반 (21) 번 (윤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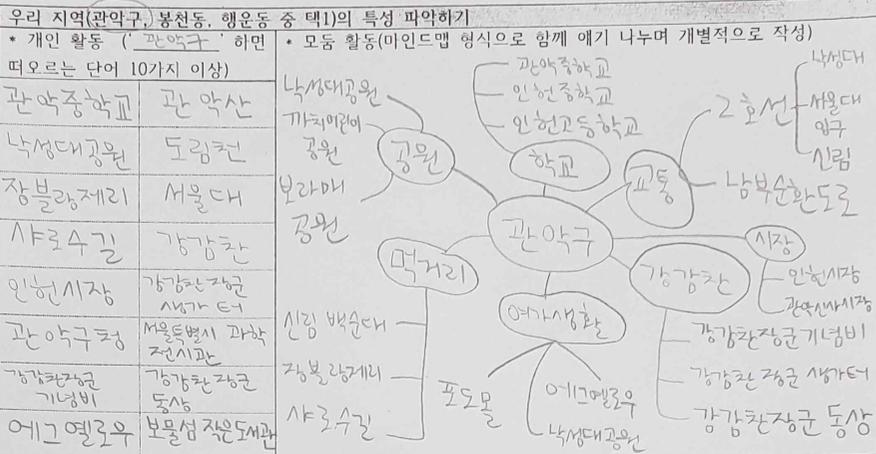
우리 지역(관악구, 봉천동, 행운동 중 택1)의 특성 파악하기	
* 개인 활동 ('관악구' 하면 * 모듈 활동(마인드맵 형식으로 함께 얘기 나누며 개별적으로 작성) 떠오르는 단어 10가지 이상)	
낙성대	강남천
순대	서울대학교
그호선	장미여관
신림	관악중학교
변	관악구청
관악산	서울여상
천지자동차	남원동한약
우행집	은행나무
우리 지역의 슬로건과 로고(또는 캐릭터) 개발하기(개인 활동)	
* 색연필, 색사인펜 등을 이용하여 칼라로 작성하기 (우수작은 '마을교과서'에 실을 수도 있음)	
<p>대세로 도시 관악</p> <p>관악구 마스코트 악들이</p>	<p>* 로고(또는 캐릭터) 설명 (자세하게)</p> <p>관악구 하면 낙성대고 낙성대 하면 강감찬 장군이 먼저 생각 나기 때문에 강감찬 장군을 모티브로 만들어야 캐릭터이다.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관악구에 위치 하고 있어 책을 주고 있게 그려냈다. 원자습성은 관악구가 큰바다 정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등등하게 가늠된 여러 있는 예쁜 관악구가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또한 문기를 소리 하지 않고서 이휘트 프라임을 뜻한다.</p>
평가 기준(각 1점)(자기 평가 : 5 점)	
1. 떠오르는 단어 10가지 이상 적었는가? (1) 2. 마인드맵을 알차게 작성하였는가? (1)	
3. 칼라로 작성하였는가? (1) 4. 로고(또는 캐릭터)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담고 있는가? (1)	
5. 로고(또는 캐릭터)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었나? (1) * 제출 날짜를 지켰는가?(감점으로 처리) (-1점)	



세계화와 지역화 프로젝트 1 : 전통시장 살리기 (5점)

세계화와 지역화 프로젝트 2 : 지역브랜드 : 슬로건과 로고(또는 캐릭터) 만들기 (5점)

3학년 (6)반 (8)반 (유성현)



우리 지역의 슬로건과 로고(또는 캐릭터) 개발하기(개인 활동)

색연필, 색사인펜 등을 이용하여 칼라로 작성하기 (우수작은 '마을교과서'에 실을 수도 있음)

나는 우리 지역중에 서도, 제일 넓고 포괄적인 관악 구에 대해서 로 고를 만들었다. 일단 강감찬을 상징 하는 낙성대를 표현 하고자 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했다. 또, 우리 구의 랜드마크 라 할 수 있는 관악산, 서울대를 넣었다. 마지막으로, 관악구에는 2호선역이 많아서 2호선 노선을 표현했다.

평가 기준(각 1점)(자기 평가 : 5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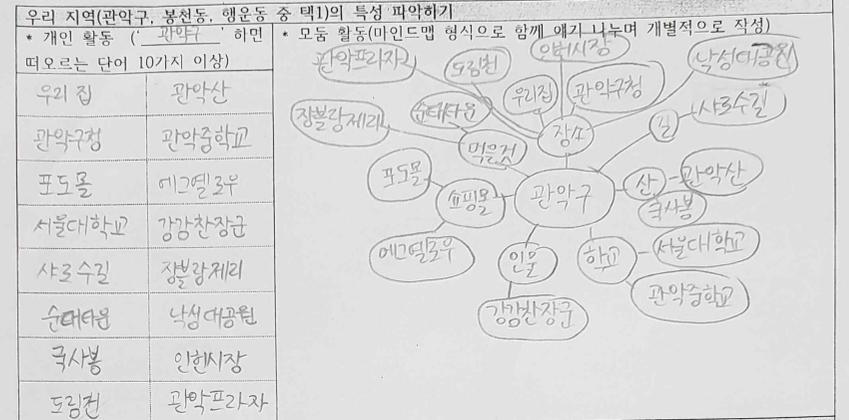
- 떠오르는 단어 10가지 이상 적었는가? (○)
- 마인드맵을 알차게 작성하였는가? (○)
- 칼라로 작성하였는가? (○)
- 로고(또는 캐릭터)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담고 있는가? (○)
- 로고(또는 캐릭터)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었나? (○)

* 제출 날짜를 지켰는가?(감점으로 처리) (-1점)

세계화와 지역화 프로젝트 1 : 전통시장 살리기 (5점)

세계화와 지역화 프로젝트 2 : 지역브랜드 : 슬로건과 로고(또는 캐릭터) 만들기 (5점)

3학년 (5)반 (21)반 (양유나)



우리 지역의 슬로건과 로고(또는 캐릭터) 개발하기(개인 활동)

색연필, 색사인펜 등을 이용하여 칼라로 작성하기 (우수작은 '마을교과서'에 실을 수도 있음)

E ejoy - 즐겁다
E ducation - 교육
N ature - 자연
세가지 조화를 이루는 관악구를 뜻한다 (슬로건, 로고)

(캐릭터) 낙성대공원-자연, 즐겁다
강감찬 장군이 서울대생 장군 사마(교육) 관악산을 듣고 있다. (자연)

평가 기준(각 1점)(자기 평가 : 5 점)

- 떠오르는 단어 10가지 이상 적었는가? (○)
- 마인드맵을 알차게 작성하였는가? (○)
- 칼라로 작성하였는가? (○)
- 로고(또는 캐릭터)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담고 있는가? (○)
- 로고(또는 캐릭터)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었나? (○)

* 제출 날짜를 지켰는가?(감점으로 처리) (-1점)

enjoy education nature



마을 교과서를 만들면서

여기저기에서 마을 교과서를 만든다. 지역별로 교과서를 만들고 실제로 수업도 하는 경우도 있다. 도시에서, 구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교과서를 만든다. 어? 이거 우리 학교 아이들과 우리 동네의 마을 교과서를 만들어 봐도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솔직히 다른 지역의 마을 교과서처럼 멋지게 만들 자신은 없었다. 3학년 전체 아이들과 함께 한 반에 한 권씩 마을 교과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었다. 수준은 많이 떨어지겠지만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친구들이 만든 내용을 돌려 읽으면서 관악구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애정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먼저 다른 학교에서 만든 마을 교과서를 보여주었다. 완성하게 될 마을 교과서의 모습을 살핀 후 우리 반의 마을 교과서를 만든다면 적당한 대단원 주제를 각자 2~3개씩 적어 본 후 모둠에서 6개의 단원으로 만들어 보게 했다. 각 모둠별로 6개의 단원명을 커다란 포스트일에 적어 붙이면서 발표한 후, 분류를 다시 하고 스티커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이 나온 6개를 골라 그 반의 교과서 틀거리를 잡았다.

모둠별로 원하는 대단원을 맡고 소단원을 무엇으로 구성할지 의논하여 정했다. 모듬원 4명이 각자 하나씩 소단원을 맡아 ‘관악백과사전’, ‘2013 관악 마을공동체 지역조사 자료집’, ‘2016 동작 관악 마을 예술 자료집’, ‘관악 특특’, ‘관악 우리 마을 쭉쭉 길잡이’, ‘2017 마을결합형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한 안내자료’ 등 관악구청이나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나온 자료들을 참고로 조사를 하였다. 모자란 정보는 컴퓨터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더 찾게 했다.

학생들은 모듬별로 의논하며 찾은 정보를 정리하였고 뒷부분에 학습활동을 만들어 완성된 대단원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홈페이지에 올라운 자료들을 출력하여 같은 반 학생들에게 모듬별로 2부씩 건넸으며, 2명이 한 부씩을 살펴보았다. 돌아가며 다른 모듬의 내용을 읽으며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 댓글을 달았고 최종적으로 원래 모듬에서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 의논하여 수정한 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책자는 이러한 대단원 보고서를 다시 편집하여 완성한 것이다. 수준이 고르지 않으나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자료를 실으려 했다. 학생들의 생생한 소감을 통해 이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 수 있다.

2015년 지금 3학년 학생들이 1학년 때 한 달 여 진행했던 ‘동네 어르신 인터뷰 보고서’를 책으로 묶었다. 3학년 때에 이를 발전시켜 역사 시간에 동네 어르신들에게 우리 현대사의 경험과 동네의 변화를 묻는 인터뷰를 다시 진행했는데 이 부분을 묶어 2부에 넣었다. 사회 시간에는 관악구의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 보는 수업을 했고, 그 결과물도 함께 실었다.

3학년 학생들은 올 한 해 동안 국어와 미술 시간에 우리 동네 마을길 만들기 프로젝트, 체육 시간에 동네 조깅길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미술 시간에 추억을 담은 우리 동네 건물을 그렸으며, 국어 시간에는 ‘관악의 보물 찾기’ 프로젝트 수업을 했다. 이것들을 한 데 묶어 이미 한 권의 책자로 펴냈으며, 이 책은 마을 관련 수업을 담은 두 번째 책이다.

학생들이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내가 사는 마을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고, 그 새로운 시선을 사랑하는 마음에까지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나아지길 바라며, 그를 위해 작은 실천을 하는 관악중학교 학생들이 된다면 더 바랄게 없었다.

2017년 12월 세밀

국어과 : 구본희, 황정희 / 사회과 : 박래광, 서미라, 강효순